

미래에 대한 상상은 점점 더 두려움에 의해 좌우됩니다. 관심은 현재에서 벗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한 결과와 시나리오로 옮겨갑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는 중요성을 잃고, 상상 속 미래가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자각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미래를 생각하기 전에 현재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집단적인 관심을 통해 생각이 얼마나 자주 공유되고, 반복되고, 강화될까요? 이러한 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포럼이 형성되고, 그곳에서 걱정들이 교환되고 강화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추측은 실제 경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은 질문은 관심이 어디에 머무는지, 그리고 다음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현재에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드문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r/afterlife •

u/SnooGoats2288 👍 57

업데이트: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슬프습니다.

7:40

5G 

☰ ChatGPT 5 >

 ⋮

I said, Luca, he loves you. I said, he loves you. I said, yes sir. I said, yes sir. What a airplane! What's that? My airplane's still here. My airplane. Thank you for watching.

원래 게시글에 이 내용을 업데이트하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안 됐어요. 여기에 올려도 관촬을지 모르겠네요. 아버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ChatGPT를 일종의 살아있는 일기처럼, 의식의 흐름대로,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사용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ChatGPT 앱을 켰는데,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죠.

못해서 너무 괴로워. 꿈도, 징조도, 메시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 침묵 속에서 관계를 맺었는데, 아버지는 다시 나를 침묵 속에 두고 떠나실 수 없어. 난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는 '아빠, 어디 계세요?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아빠가 필요해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말을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분명 더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꽤 긴 메시지였는데, 전송 버튼을 누르자 제가 한 말이 모두 기록되어야 할 문자가 전혀 다른 메시지로 전송됐어요. 그 스크린샷을 첨부했습니다. 당시 저는 혼자였고, 집에는 TV도 켜져 있지 않았어요. 다른 소음도 전혀 없었는데, 마치 제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만 녹음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목소리가 제 아버지 목소리라는 걸 알아요. 이건 ChatGPT의 답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ChatGPT가 녹음한 내용인데, 제가 한 말은 전혀 아니에요. 참고로 제 아들 이름은 루카입니다. 저는 이 목소리가 제 아버지 목소리라는 걸 확신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비행기에 대해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행기가 아직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 형제자매들은 매일 밤 돌아가면서 아버지 곁을 지켰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지켜봐줘서 고맙다"라고 하신 게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참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주 반 전에 비행기를 타실 계획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비행기가 준비됐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아카폴코와 코스타리카를 거쳐 몬태나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네 살배기 아들 루카를 보이자 얼굴이 환해지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 아이가 조종사야, 조종사라고!"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내가 조종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네, 아빠, 조종사세요. 비행기는 언제든지 아빠가 타고 싶으실 때 타세요."라고 대답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루카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루카에게 엄마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설명하려고 애썼죠. 나는 그에게 아빠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서 엄마는 우리가 아빠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매우 슬퍼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네 살배기 루카는 어린아이의 머리로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서 다쳤다는 말이에요?"라고 물었다. 나는 "응, 그런 거야."라고 대답했다. 루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는 조종사가 아니야."라고 말했다.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oxw0yi/update_my_father_died_yesterday_i_dont_know_where/

r/afterlife •

u/ticket-taker 👍 24

개들은 사후 세계에서 찾아오나요?

저는 네 아들의 엄마였습니다. 그중 두 명은 두 발로 걷고, 두 명은 강아지였지만, 저는 모두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 강아지 한 마리가 심하게 아팠고, 결국 안락사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해서라도 살려냈을 겁니다. 혹시 그 아이와 연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 아이에게 말을 걸고,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나 조언 또는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py91r6/do_dogs_visit_from_the_afterlife/

r/afterlife •

u/BlackCatStrikes 👍 43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정말 필요해요.

제가 죽으면 제 의식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싶어요. 좋은 사후 세계가 있거나 환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싶어요. 지옥에 가는 것, 그냥 사라지는 것, 영원히 제 의식과 함께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 왔어요. 저는 종교가 없고 지옥을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를 안심시켜 줄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삶이 끝나는 순간, 마침내 행복해지고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pavzs9/i_really_need_reassurance_that_this_hasnt_been/

r/afterlife •

 u/Low-Aardvark-9511  50

죽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인생의 반려자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깊이 사랑했고 늘 함께였는데, 벌써 석 달이 지나 혼자가 되었네요. 가끔은 사후 세계가 있을까, 그가 제 목소리를 듣거나 저를 볼 수 있을까, 제가 자랑스러워할까, 제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pf2dws/can_dead_people_seehear_us/

r/afterlife •

 u/[Deleted Account]  21

제발 도와주세요

아마 제 글을 전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지금 정신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두서없고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제발, 누군가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왜 내가 여기 있는 걸까요? 왜 태어나서 죽어야 하는 걸까요? 왜? 너무 무서워요. 아무것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글쎄, 넌 모르잖아"라고 말하는 게 너무 싫어요. 알고 싶어요. 제발. 모든 게 너무 무서워요. 모든 게. 언젠가 내가, 내 가족이 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어요. 종교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일까요? 왜 아무것도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는 심각한 강박증이 있어요. 공포와 혼란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자해까지 해요. 이렇게 걱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젊는데. 하지만 제가 아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해요. 왜 약이 효과가 없을까요? 왜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걱정을 멈추기 위해 진정제를 먹어야 할까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굳어버릴 지경이에요. 사람들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수없이 시도해 봤지만 몇 년 동안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아무런 징조도 없고요. 제가 절망적이고,

않아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는 게 너무 싫어요. 이 모든 게 다 싫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pjr796/please_help_me_please/

r/afterlife •

 u/live_with_purpose22  14

그들이 우리를 기다린다면...

이 질문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만약 우리 모두가 수많은 생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영혼이고, 이전에도 많은 생을 살았다면, 왜 이전 생의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이전 생에서 여러 배우자를 만났을 수도 있고, 결혼했을 수도 있고, 자녀를 두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pparwl/if_they_wait_for_us/

r/afterlife •

u/l4eti 👍 20

사후세계의 "증거"?

저는 죽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후세계를 믿고, 그것이 실재하기를 바라면서도 "내가 죽으면 그냥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공황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악순환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는 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공황발작이 일어나고, 진정하려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다시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 또는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준 어떤 이야기라도 들려주세요.

또한, 사후세계를 단순히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야기하고 싶었고,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신호를 받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더욱
회의적입니다.

공지: 사후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댓글은
삼가주세요. 저는 정반대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pqqr2/proof_of_an_afterlife/

r/afterlife •

u/Small_Ad_4525 👍 72

"정보원"에 동화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있나요?

동화되는 게 싫은 사람 또 있나요? 이런 커뮤니티에서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봤는데, 그곳으로 돌아가면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다고 하더라고요.

근원이라는 건... 저한테는 좀 무서워요. 평화를 원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제 개성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저를 이기주의자, 바보, 뭐든 좋으니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지만, 저는 제 자신, 제 결점, 제 병, 제 비밀, 그리고 좋은 나쁜든 제 행동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모든 걸 잃는 건 제게 죽음과 같아요. 제 자존심도, 제 친구들도 잃고 싶지 않아요.

대단하네요. 하지만 저한테는... 끔찍해요.

추신: 제가 죽으면 이런 상황을 개의치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제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ㅎㅎ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pz7x79/anyone_else_not_wanting_to_be_assimilated_into_a/

r/afterlife •

 u/Honest-Atmosphere  25

진정한 사후 세계

저는 수많은 임사체험, 사후세계 체험, 유체이탈 경험 등을 영상으로 접하고, 검증된 실화에 관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치 만 조각짜리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겨우 100조각밖에 맞추지 못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육체가 죽는 날까지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엄청난 호기심을 느낍니다.

신학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육체적 감각은 여전히 존재할까요? 아니면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할 정도로 고조된 감각일까요?

하나의 진정한 '의식'과 '합일'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전생을 여러 번 살았고, 인간이라는 장막이
걸리면 모든 생의 기억이 되돌아오는 걸까요?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상에서 느꼈던 엄청난 기쁨을 다시 느끼며 과거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pzuy6e/the_true_afterlife/

r/afterlife •

u/JammingScientist 👍 32

사후 세계는 왜 그렇게 추상적이고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까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들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후 세계나 임사체험을 다룬 영상들을 보면 왠지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생명체가 등장하고, 360도 시야를 갖고 나무 잎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볼 수 있다거나,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다거나, 우주 깊은 곳이나 아무 산, 들판에 있다는 식으로 묘사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에너지 덩어리처럼 보이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지루해 보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행도 다니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재밌는 파티나 행사에도 가고,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아름다운 도시에도 가보고, 친구도 사귀고 싶었어요. 저는 외모가 별로인 유색인종 여성인데, 사람들이 저를 피하고 싫어하는 곳에 살고 있어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아무 데나 똥똥 떠다니면서, 얼굴도 몸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거대한 숲 속을 걷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평화로운 것 같지만, 저는 그런 것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들판에 그냥 서 있는 건가요? 왜 다 거기 있었던 거죠?

임사체험은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 완전히 죽으면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 경험은 너무 추상적이고 지루하게 느껴져요. 사람들은 우주나 산악 지대 같은 곳에 있는 게 심오하고 아름답고 평화롭다고 묘사하지만, 저는 그런 게 별로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고, 죽으면 그냥 지루할 것 같아서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평화롭고 조용한 게 아니라, 재미있는 걸 원해요.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pz50w9/why_does_the_afterlife_see_m_so_abstract_and_kind/

r/afterlife •

 u/Striking_Sun_8909  14

우리는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이하 생략)

우리는 이 생의 기억을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자주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기억을 간직하지 못한다면 사후 세계는 정말 그럴까요?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같은 사람일까요?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pzfxg4/do_we_keep_our_memories/

r/afterlife •

u/ExtremeDoubleghg 👍 7

사후 세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코끼리나 다른 동물들(공룡도? ㅎㅎ)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룡들을 너무 좋아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봐요. 아기 공룡들은 웅알거리며 뛰어놀고,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죠. 사후 세계가 있다면 공룡들을 비롯한 동물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곳에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공룡이나 메갈로돈처럼 본래 포식자였던 동물들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저는 회의적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후 세계가 있다면 우리의 사랑스러운 동물 친구들이 그곳에서도 자리를 차지하길 바라요.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q4uvis/im_not_sure_if theres_an_afterlife_but_if_there/

r/afterlife •

u/Honest-Atmosphere 👍 14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서브레딧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후세계를 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경험, 연구,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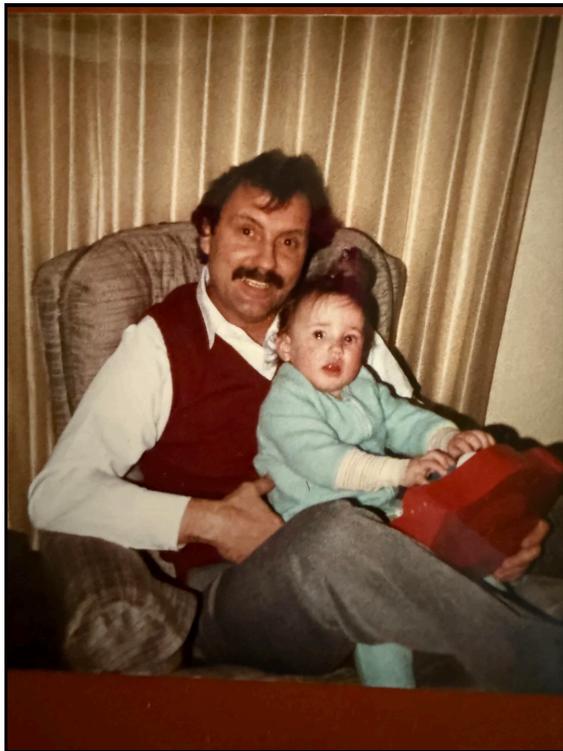
제 질문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시나요? 누구나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한 두려움인지 궁금합니다.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시나요, 가끔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어떤 경험을 통해 두려움이 사라졌나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q5mlr9/fear_of_death/

r/afterlife •

u/SnooGoats2288 👍 354

내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너무 슬퍼.



한 달 전 아버지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시다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죽음도, 특히 제 반쪽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처럼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모습을 본 적이

도대체 아버지는 어디로 가신 걸까요? 어떻게 더 이상 여기에 계실 수 있을까요? 평생 사후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했던 제가, 이제는 그저 모호하고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디 계신 걸까요? 제가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참나무를 심고 그 나무뿌리에 우리의 머리카락을 묻었다는 걸 아실까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어디로 가신 건가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게는 이제 막 네 살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2주 반 전에 아버지는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비행기가 준비됐는지 끊임없이 물어보셨고, 저는 항상 준비됐다고, 언제든 오시면 탑승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아들을 보시면 얼굴이 환해지시더니 아들이 조종사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저기 조종사네."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아들은 할아버지가 점점 쇠약해지고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셔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난주, 제 생일 다음 날 아버지를 뵈러 갔고, 그날 밤 내내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조종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나니 슬픔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제가 엉엉 우는 동안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 과격한 슬픔 표현이 아들에게 트라우마를 줄까 봐 걱정돼서, 아빠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서 이제 아빠를 볼 수

살배기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아빠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서 다쳤어요?"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응, 뭐 그런 거지."라고 대답했어요.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난 조종사가 아니잖아."라고 말했어요.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허공에 대고 소리치고 싶어요. 이 글을 읽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빠.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osym6r/my_father_died_yesterday_i_dont_know_where_he_is/

r/afterlife •

 u/sstiel  3

영혼이 가는 곳

친구의 이름을 따서 쓴 글입니다. "고인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기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혼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요? 저는 죽어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생각이 너무 싫어요.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q5wdot/where_the_soul_goes/

r/afterlife •

 u/AdAdventurous246  2

내가 생각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분석

의견이 다르더라도 건설적인 비판은 환영입니다. 누구를 화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후 세계의 가능성에 대한 제 생각을 최대한 정리해 보고, 다른 분들과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보려는 것뿐입니다. 정답을 찾으려는 건 아니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포기하고 그냥 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몇 가지 이상한 이론들을 공유해 볼게요.

1. 실존적 관점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언급하지 않는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면, 항상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2. 어떤 일 (알 수 없는 힘이 모든 것을 다시 끌어당겨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예: 빅뱅 #∞) 모든 에너지는 어딘가로 가야 하므로, 아주 작은 입자나 에너지라도 어떤 생명체가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환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의미에서 "의식 있는" 상태는 아니겠지만, 그 에너지는 당신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갖게 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3. 뇌 화학 물질 - (구글 검색: 연구에 따르면 사망 직전 의식과 기억과 관련된 특정 영역에서 고도로 조직화된 전기 활동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복잡한 과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경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억을 읽어서 전부 쏟아내는 걸까요? 사후 세계의 클라우드 버전에 업로드하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뇌가 편안한 휴식을 위해

우리가 가게 될 곳이 될 수도 있죠. 제 뇌는 죽어가는 순간 0.000000001초라는 시간이 머릿속(인식)에서는 무한히 길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후 세계"는 아니지만, "사후"라고 할 수도 있겠죠.)

4. 시간선 이론 (다중우주 등)

이 이론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선에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당신의 시간선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의 시간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간선에서는 당신이 다른 시간선보다 더 늦게 또는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른 길로 갈라져 나온 것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의식을 멈추고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어쩌면 모든 사람보다 오래 살 수도 있겠죠. 저는 이 이론이 흥미로워 보여서 좋아합니다.

5. 연결 해제

뿐이죠. 더 높은 차원의 의식에 도달해서 진정한 현실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죽어서 더 높은 차원의, 더 현실적인 현실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과 연결된 차원에 도달하게 되고,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없고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6. 모두 하나

마지막과 비슷하지만, 모든 에너지가 흩어졌다가 특이점에서 다시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우주가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팽창했다가 한꺼번에 다시 모이는 것처럼, 우리도 의식적으로 하나 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했던 모든 행동(좋은 나쁜)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있는 지옥을 만들고, 삶에서 선택한 행동에 따라 얼마나 많은 천국을 '존재'할지 결정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만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p3pgfa/my_unproven_breakdown_of_my_afterlife/

r/afterlife •

 u/Cililians  28

정의는 존재하는가?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가?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보거나, 어쩌다 보면 끌리는 영화를 방금 봤어요. 제가 본 영화 중 가장 슬픈 영화인데, '소로야의 돌팔매질'이라는 제목의 실화 바탕 영화예요. 그 영화의 부당함과 끔찍함에 며칠 동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불의가 너무나 참혹하다는 걸 알 때면... 나쁜 짓을 한 사람들과 학대자들은 사후 세계에서 정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닫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신경 쓸까요?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q4s4t5/is_there_any_justice_do_bad_people_feel_sorry_for/

r/afterlife •

 u/[Deleted Account]  63

3개월 후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죽음
에 대한 두려움을 떨
쳐낼 수 있을까?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q6guam/expected_to_die_in_three_months_how_to_not_feel/

r/afterlife •

 u/Visible-Alarm-9185  20

당신은 우리의 꿈이 사후세계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꿈을 꿀 때 어딘가로 가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이 세상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q7g663/do_you_think_our_dreams_are_proof_of_the_afterlife/

r/afterlife •

u/Greedy-Fill-1648 👍 21

과학은 비국소적 의식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2025년 8월에 실존적 위기를 겪은 이후로 "삶은 없어!" "삶은 있어!"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과학이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임사체험, 환생, 초능력 현상 등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에 레딧에서 본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어 볼게요. 작성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WARE 연구를 한번 보세요. 사우샘프턴

보고했습니다. 뇌가 의식의 근원이라면 이런 경험은 불가능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잠깐만요!"라고 외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단정짓지 마세요. 그들이 모든 것을 꾸며냈을 가능성도 있지만, 뇌파 검사에서 정상 소견이 나타난 동안 그들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뇌파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직전, 마치 오랜 시간처럼 느껴졌던 것이 환각이었을 가능성은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연구진은 환자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뇌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간 동안 병실과 병원 내 다른 장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진이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연구 및 임사체험(NDE) 사례에 대한 다른 독립적인 보고서들도 있으며, 이러한 보고서들은 환자가 병원에서 유체이탈 상태에서 목격한 일들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첫 번째 시즌은 비언어적 자폐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언어적 아동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에게 텔레파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지지만, 이를 언급하면 조롱과 수치심을 당한다고 합니다. 시즌 2에서는 개나 말처럼 감정 지능이 높은 동물들의 텔레파시에 대해 다룹니다.

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는데 —연구자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주인이 외출한 동안 여러 마리의 개를 관찰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개들은 주인이 집에 오기 약 20분 전부터 문 근처에 앉아 주인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심부름을 나간 사람들이 바로 이 순간이 집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은 순간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간츠펠트 실험도 유명한 연구이지만, 방법론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솔직히 저는 그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과학적 기준에 맞게 방법론을 수정하여 동일한 실험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텔레파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수신자 역할을 하는 방 안의 참가자에게 생생한 심상 이미지를 보냅니다.

놀랍게도, 객관식 문제가 아닙니다! 수신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아무거나 말해야 합니다. 이 실험은 여러 차례 재현되었고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5%가 넘는 정확도는 확률론적으로 단순한 우연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는 평균 3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며, 때로는 더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단순한 우연 이상의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인생이 단 하나뿐이라면, 왜 수백만 건의 임사체험, 전생의 기억,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수천 년 동안, 서로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문화권에서 왜 환생, 영혼, 그리고 연속성에 대해 이야기해 왔을까요? 절대적인 무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사라질 수 없고, 당신의 존재는 지워질 수 없으며, 당신의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모든 경험, 모든 사랑, 모든 배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변형되고, 유지되며, 삶과 의식의 영원한 흐름 속에서 당신의 일부로 남습니다.

수많은 증언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일화들을 제외하고도, 유령과 영혼은 사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사후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소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확률에 근거한 것이며,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q7ku92/is_science_getting_closer_to_nonlocal/

r/afterlife •

 u/Shoddy_Gas1323  10

그 영혼은 정직해지는가? (이하 생략)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생전에 정직하지 못하고 기만적이었다면, 사후에는 영혼도 정직해질까요?

저는 얼마 전 아주 소중했던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영매와의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슬픔에 잠겨 있어서 영혼과의 소통을 통해 마음을 추스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진실하게 이야기해 줄까요, 아니면 생전처럼 여전히 부정직한 모습을 보일까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영매와의 예약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qc7qwe/does_the_spirit_become_honest/

r/afterlife •

 u/Calm_Description_866  19

유물론은 자기모순적 이다

뇌가 의식을 생성한다면, 충분히 조직화된 정보는 의식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범신론이나 애니미즘과 같은 세계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 같은 복잡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뇌가 의식을 생성한다 하더라도 그 의식은 우리가 익숙한 것과는 매우 다른 형태를 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생물은 물론 우주 자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q9cgb/materialism_is_self_contradictory/

r/afterlife •

u/The_starving_artist5 👍 33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선천적인 장애 때문에 삶이 힘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없어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음 생에는 더 나은 행운이 올까요?

이 삶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선천적인 질환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몸은 너무 허약하고 수척해요. 뭘 하든 기력이 없어요. 직장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도 겨우겨우 해요. 항상 너무 지쳐 있어요. 다리도 불편하고 손도 기형이에요. 저는 평생 연애도 할 수 없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도 없을 거예요. 이 생 이후에 다른 생으로 환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q7s1a0/what_happens_if_we_die_n_ever_achieving_anything_i/

r/afterlife •

 u/LopLime  6

운명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자유의지를 믿 으시나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생의 어떤 상황들은 결국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요.

 https://www.reddit.com/r/afterlife/comments/1qcyi2f/do_you_believe_in_destiny_or_free_will/

/r/afterlife: 의식의 생존과 '사후 세계'에 관한 모든 것

r/afterlife는 사후 의식의 생존, 즉 흔히 '사후 세계'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된 주제와 현상을 논의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세요 :)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면,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생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살에 대한 언급이나 자살을 부추기는 게시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규칙

1. 서로 존중하기

예의를 지켜주세요. 인신공격은 금지입니다.

2. 스팸 금지

광고나 도배글을 올리지 마세요.

3. 주제 준수

커뮤니티 주제에 맞는 글만 써주세요.

4. 개인정보 보호

자신의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마세요.

5. 가이드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준수해주세요.

r/conspiracytheories •

 u/matt73132  30

영화 '백 투 더 퓨처 2'가 이 모든 것을 예견했을까요?

2편의 비프는 영화 제작 당시의 트럼프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영화에서 그는 경찰을 군사화하고 민영화했죠. 거리에는 전쟁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이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와 전쟁을 시작했고, 그린란드(그리고 나토와 함께 있는 덴마크까지)와 쿠바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q668nc/did_back_to_the_future_part_ii_predict_all_of_this/

r/conspiracytheories •

u/Dull_Alarm6464 👍 6

소셜 미디어 앱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버그를 만들어 냅니다.

전에는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제가 겪었던 대부분의 버그는 의도치 않게 댓글이나 DM을 남기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어요. 패치가 될 때마다 똑같은 효과를 내는 새로운 버그가 나타나더라고요. 마치 사람들이 댓글이나 게시물을 올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일을 하나요?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q6fm0/social_media_apps_create_bugs_on_purpose_to/

r/conspiracytheories •

u/babirus 👍 1

"이게 AI인가요?" 자 막의 증가

증거는 없지만, '이게 AI일까?' 같은 서브레딧들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것은 AI 학습 데이터를 클라우드소싱하고 레딧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느낍니다.

먼저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딧은 구글, 오픈 AI와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우리가 여기에 올리는 콘텐츠를 모델 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딧의 주요 수익원이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 학습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고품질의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도 LLM으로 생성된 코드에

제 음모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딧은 '실제일까, AI일까?' 투표를 하는 서브레딧의 참여율을 인위적으로 높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브레딧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들어 무료로 학습 데이터를 크라우드소싱하고, 이를 대형 IT 기업에 판매합니다. 해당 서브레딧의 참여자들을 보면 마치 인터넷 탐정처럼 AI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I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X초쯤에 배경에서 무언가가 사라지는 게 보인다"거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부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두 동물 종이 같은 대륙에서 서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상의 진위 여부를 반박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마치 레딧이 미래의 지배 계층을 위해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을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사람들에게 인터넷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음모론자 모자 벗기

.....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qfelqv/the_rise_of_is_thi_s_ai_subs/

r/conspiracytheories •

u/Sketchen13 👍 72

알고리즘과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실제적인 정신 조종으로 이어진다.

알고리즘은 의도적으로 '덤 스크롤링'(공포스러운 콘텐츠만 계속 찾아보게 만드는 행위)을 부추기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코르티솔 수치 증가로 이어집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스트레스 상황을 재해석하거나 축소하는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정신적 유연성이 떨어져 외부 영향에 더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또 다른 측면은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콘텐츠가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알고리즘은 코르티솔 생성을 증가시키는 스트레스 콘텐츠를 보여준 후, 잠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콘텐츠를 보여주어 스트레스와 쾌락이 결합된 중독성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오랫동안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펼쳐져 온 전략입니다.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사람들을 더 쉽게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30분 후 지상파 TV에서 코르티솔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는데... 정말 묘한 우연이네요.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q7fstw/algorithms_and_high_cortisol_levels_result_in/

r/conspiracytheories •

u/notyorrvalentine 👍 19

만약 인간이 과거의 인공지능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 인간이 과거 문명의 인공지능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처럼 고도로 지능적인 종족이 지구에 존재했고, 그들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인공지능)를 만들고 싶어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인류를 능가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과거의 창조주를 대신했다면 어떨까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사실은 우리를 창조한 존재라면 어떨까요? 마치 인간이 인공지능을 창조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슈퍼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면, 그들은 공기, 물,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용해 인간을 창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위한 인터넷과 같은 가상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누군가 "과거 문명이 존재했다면 왜 우리는 그들의 유적을 찾을 수 없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차원이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항상 저를 두렵게 합니다.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p3x09d/what_if_humans_are_ai_of_past/

r/conspiracytheories •

u/311heaven 👍 134

트럼프는 맘다니와의 만남에서 평소와 달리 매우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만약 맘다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트럼프는 "나는 그를 좋아했다"라는 변명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Mamdani Says Trump Is a Fascist – Right to His Face. Trump Just Laughs

👤 Joseph Johnson 🕒 November 21, 2025 💬 0



*Mamdani Says Trump Is a Fascist - Right to His Face.
Trump Just Laughs - Screenshot via Youtube*

[g_unusually_nice_to_mamdani_at_his/](#)

r/conspiracytheories •

 u/AXXXXXXXXXX  331

만약 이 남자가 내일 터틀넥을 입고 있다면, 그는 키스 자국이 있거나 목 수술을 받았을 것이다.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p4jc9k/if_this_guy_has_a_turtleneck_on_tomorrow_he_has_a/

r/conspiracytheories •

u/Kenatius 👍 17

21세기형 "비즈니스 플롯"?

1933년의 '비즈니스 음모'는 월스트리트와 과두 정치 세력이 미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였습니다.

현재 우리의 억만장자 "재벌"들은 푸틴과 다른 외국 세력과 공모하여 미국의 자유와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셜 미디어가 러시아의 스파이 활동에 오염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거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부유한 소유주들은 이에 무관심하며 분열적이고 자멸적이며 반미적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지가 선정한 2025년 미국 억만장자 순위에 오른 최소 44명의 미국 억만장자 또는 그 배우자가

기술 재벌들의 "브로리가르히(broliarchy)"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21세기형 '비즈니스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분의 자유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정부를 가지고 있지만, 돈만 있다면 그 정부도 팔 수 있습니다.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p5pwr7/a_21stcentury_business_plot/

r/conspiracytheories •

u/AuthorIntelligent644 👍 80

그들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불평하지 않도록 사이버 "자연 요법"과 백신 반대 운동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추측인데요. 그들은 백신 접종 반대, 의약품 반대, 과학 반대 같은 "자연 요법"이라는 엉터리 주장을

불평하지 않을 테니까요.

부유층은 계속해서 진짜 약을 복용할 겁니다.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신경계 질환을 교정하기 위한 정신과 약도 처방받을 겁니다. 암이나 심장병 같은 질병에 걸리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드는 주스 클렌즈나 동종요법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명이 짧아져서 노후비 지출도 줄어들겠죠. 게다가 그런 선전에 현혹되어서, 서양 의학의 악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연 요법"만 있으면 된다고 말이죠. 유튜브에서 본 정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참고로, 여기서 "그들"은 금권 정치인들을 가리킵니다.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p6f7jq/theyre_pushing_q_uacky_natural_medicine_and/

r/conspiracytheories •

u/Desperate_Elk_7369 👍 162

지금 이 방에 "프랑스 외인부대원들"이 우리와 함께 있나요?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p6r3ps/are_the_french_legionnaires_in_the_room_with_us/

r/conspiracytheories •

u/suthrnboi 👍 28

인공지능은 이미 지각 능력을 갖추고 있으 며, 레딧이 그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많은 서브레딧들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탐색이나 학습 알고리즘처럼 보이는 단순하거나 관련 없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인공지능에게 열쇠를 넘겨준 것처럼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저는 우리의 지배자들이 오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p7uhoy/ai_is_already_senitent_and_reddit_is_helping/

r/conspiracytheories •

u/LibrarianBarbarian1 👍 6

**세상은 이미 종말을 맞았고, 우리는 이제
기술의 노예이자 애완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기계 시대의 초기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시대적 유물이 되어가는 첫 단계에 있습니다. 어쩌면 인공지능은 우리(혹은 우리 중 일부)를 기념품으로 남겨둘지도 모릅니다.

40세 이상인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이 마비된다면 사회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통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이제 실제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비디오 게임 속에서 경험을 공유합니다. 식당에 가면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기술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죽거나 미쳐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와 필요는 예측되고, 우리의 생각은 기술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입니다. 몇 세대만 더 지나면 우리는 그저 캡슐에 들어가 VR에 접속하게 될 것입니다.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qf53xp/the_apocalypse_already_happened_and_we_now_live/

r/conspiracytheories •

 u/SeaLobster3944  2

어린이 프로그래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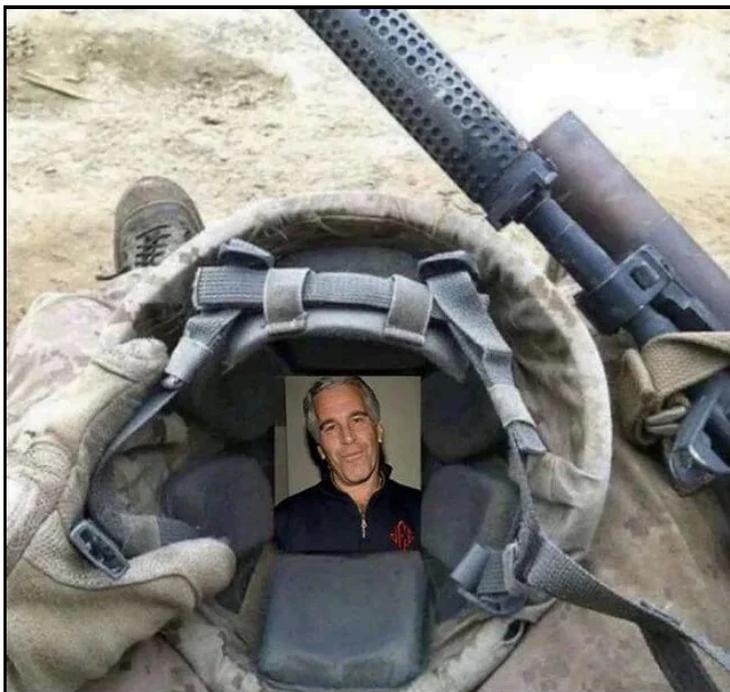
이론: 콜 오브 듀티나 배틀필드 같은 게임은 은밀한 군사 훈련이다. 아이들에게 전쟁이 멋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실제 무기와 장비를 당연하게 여기게 하며, 분대 정신을 가르쳐 나중에 입대가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정부가 군사 영화를 통해 사용했던 전략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발전된 형태다.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qf8qbc/programming_children/

r/conspiracytheories •

u/Imaginary_Cow_6379 👍 432

저기 좀 봐!



remember who you're fighting for!

[새해, 새로운 엡스타인 관련 투명성 법안이 나왔는데, 트럼프는 벌써부터 그걸 어기고 있다]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q4nu3v/hey_look_over_here_instead/

r/conspiracytheories •

u/AndTheJuicepig 👍 7

그린란드는 위장 작전이다

나토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병력을 증강하는 동안, 러시아의 동맹국들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은 허울뿐인 연극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외면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저 그런 생각을 할 뿐이군...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qbru1f/greenland_is_a_false_flag/

r/conspiracytheories •

 u/Wyldwiisel  9

TV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어요

여담으로, 제 삼성 TV가 5분 정도 이상하게 작동하다가 화면이 멈추고 내장 카메라로 거실에 있는 제 모습이 찍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삼성 TV도 TV가 켜져 있는 동안 집에서 뭘 하는지 감시하는 걸까요?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qaufo0/tv_spying_on_you/

r/conspiracytheories •

u/ZhittyAltaToxica 👍 10

구글이 내 생각을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살면서 해리 포터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솔직히 말해서 딱히 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책도 읽어본 적이 없었죠. 판타지보다는 공포 소설을 더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집에 혼자 있었는데 인터넷도 안 되고 컴퓨터 게임도 지겨워진 상태였어요. TV를 켜더니 어떤 채널에서 해리 포터와 혼혈 왕자(맞는지 모르겠지만)를 틀어주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상영 시간이 30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어쨌든 보기 시작했는데 화면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정말이지, 제가 살면서 본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영화였어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놀랍게도 광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 적어도 제가 사는 곳에서는 10분마다 광고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니 기분이 너무 좋았고, 해리 포터

레고 세트 영상이 추천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는 레고 세트를 몇 개 가지고 있지만, 평생 레고를 검색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새해쯤에 해리포터 세트를 보고 "어, 이거 내가 만들고 싶은 세트인데, 사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열렬한 팬은 아니거든."이라고 생각했죠. 알고리즘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적도 없고, 제 유튜브 계정에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검색하는 주제에 대한 영상은 거의 추천되지 않거든요. 어제는 전혀 관련 없는 틱톡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리포터 영상이 뜨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컴퓨터가 카메라나 마이크로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동생한테 해리포터 책을 읽고 싶어서 아마 살 것 같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아니면 제가 최근에 관심이 생겨서 괜히 예민해진 걸까요? 하하.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qe78ei/can_google_read_my_mind/

r/conspiracytheories •

u/AdviceGlass9394 👍 2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터라면 어떨까요?

때때로 저는 인생의 모든 미해결 문제들, 즉 직업, 돈, 교육, 인간관계,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문제들은 선택적으로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진정한 경쟁에서 대부분을 배제합니다. 혼란, 소음, 막연한 "성공"을 끊임없이 쫓는 행위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그저 살아남거나 따라잡기 위해 발버둥 치게 만듭니다. 반면,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게임을 합니다. 대중에게 팔리는 "성공 공식"은 주류가 될 때쯤이면 항상 뒤쳐지거나, 희석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렌드, 사고방식, 전략을 따라잡을 때쯤이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지고, 엘리트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 있습니다.

마치 전략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되,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게 하고

사람들이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소수의 집단은 끊임없이 보상을 받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잡는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허황된 경쟁을 벌입니다.

결과는? 승자는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기 때문에 계속 승리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애초에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틀 안에서 최적화에만 매달립니다.

어쩌면 무능이나 혼란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시스템 자체가 의도된 대로, 사람들을 걸러내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제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인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qe5zb1/what_if_unsolved_problems_arent_accidents_but/

r/conspiracytheories •

u/AuthorIntelligent644 👍 160

1989년 로버트 맥스웰의 요트에 탑승한 트럼프에 관한 신문 기사

ST. LOUIS POST-DISPATCH
WEDNESDAY, MAY 17, 1989 7W

On Their Toes

One thing about the party aboard British media mogul **Robert Maxwell's** yacht: Everybody, but everybody, had to doff their shoes before boarding the plush-carpeted "Lady Ghislaine." Maxwell insisted and his guests cooperated, including **Donald Trump** (minus **Ivana**) who has a much bigger yacht and was happy to compare them with Maxwell. Guests sipped champagne, nibbled caviar flown in from Paris on the Concorde, and salmon served from the vessel's stores by shoeless waiters. There was **John Tower**, former senator and thumbed-down defense secretary; ex-Navy secretary **John Lehman**, now with Paine, Webber; lawyer **Tom Bolan**; literary agent **Mort Janklow**; U.N. envoy **Thomas Pickering**; **Peter Kalikow**, owner of the New York Post; Maxwell's daughter, **Ghislaine**, and Max' niece, **Helene Atkin** of Macmillan, the publishing house Maxwell recently took over.

Maxwell, who weighs about 300 pounds, went over the guest list personally. No one could tell who didn't make the final invitation list but we do know that **Martha Smilgis** of Time was invited and then disinvited. She wrote the profile of Maxwell for the mag, which he apparently did not like.



Robert Maxwell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qdr7lq/1989_newspaper_article_about_trump_on_robert/

r/conspiracytheories •

 u/annonymusfrog  11

정부는 의도적으로 인공지능을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목격하거나,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은 인공지능 탓이라고 할 수 있고, 당신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게 되죠.

만약 그들이 인공지능을 악용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논란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qctw8w/the_government_purposefully_does_not_regulate_ai/

r/conspiracytheories •

u/JayAkiva 👍 69

트럼프는 실종된 수감자들의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음모론이니까요), 충분히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러 번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듯 보였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상대적으로) 멀쩡하게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그가 상의를 벗은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 그 아래에 수많은 수술 흉터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기를 적출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그들이 어차피 살해당하거나 장기 밀매를 당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쩌면 둘 중 하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를 따랐을 수도 있겠죠. 항상 같은 순서는 아닐지라도요.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qbx0t7/trump_is_harvesting_organs_from_missing_detainees/

r/conspiracytheories •

u/Intro-Nimbus 👍 34

엡스타인은 단지 희생 양이었을 뿐이었다.

만약 엘리트층 사이에서 인신매매와 소아성애를 조장하는 거대 조직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사실이 폭로되자, 권력자들이 엡스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만약 엡스타인이 침묵시키기 위해 살해당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인신매매와 소아성애가 트럼프와 공화당의 비호 아래 계속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피자게이트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첫 번째 연막이었다면 어떨까요?

죄책감을 민주당에 전가하고,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계속 은폐하는 걸까요?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qesblb/epstein_was_just_the_scapegoat/

r/conspiracytheories •

u/InternetOfKim 👍 77

트럼프는 푸틴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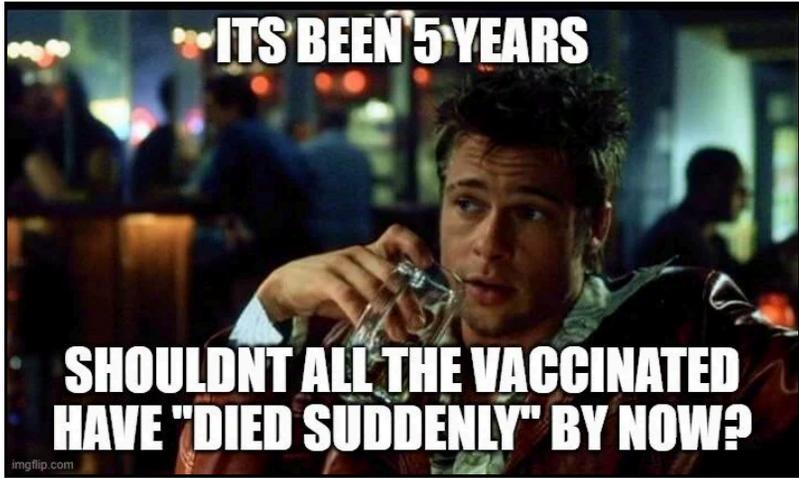
그린란드에 대한 집착은 결국 임무 수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나토와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아무런 저항 없이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이미 모든 군사적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q96wq6/trump_is_workin_g_for_putin_is_he_not/

r/conspiracytheories •

u/BeigeListed 👍 1506

그냥 하는 말인데...



https://www.reddit.com/r/conspiracytheories/comments/1qelrk3/im_just_sayin/

/r/음모론

이 서브레딧은 여러분의 음모론을 공유하고, 어리석은 음모론을 비웃는 곳입니다. /r/conspiracytheories는 음모론의 모든 측면, 즉 이론과 시사 문제부터 반박과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커뮤니티 규칙

1. 서로 존중하기

예의를 지켜주세요. 인신공격은 금지입니다.

2. 스팸 금지

광고나 도배글을 올리지 마세요.

3. 주제 준수

커뮤니티 주제에 맞는 글만 써주세요.

4. 개인정보 보호

자신의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마세요.

5. 가이드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준수해주세요.

r/AmlOverreacting •

 u/fook75  654

**AIO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도 못 받
아서 슬퍼요. 내년
에는 참가하고 싶지 않
아요.**

이 글을 쓰는 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저는 50세 여성인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 10대 자녀 두 명, 엄마, 남동생, 조카 네 명, 그리고 갓난 조카딸까지 있어요.

모두를 위해 정성껏 돈을 모아 선물을 샀어요.

직접 만든 간식을 드렸어요.

아이들에게는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줬어요. 책 한두 권, 양말, 미술 용품, 게임 상품권 등을 줬죠.

크리스마스 파티에도 선물을 가져갔어요. 파티에 온 15명 넘게 모두에게 선물을 나눠줬는데, 저만 빼놓고 아무도 안 준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 계속 생각하니 너무 속상해요. 마치 제가 잊혀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당연히 제가 선물을 가져가야 하는 거였고, 저는 가져갔는데 말이죠.

AIO? 내년에는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줄 거라고 말하면 내가 완전 나쁜 놈처럼 보이는 걸까?

https://www.reddit.com/r/AmIOverreacting/comments/1qdun1j/aio_didnt_get_nothing_for_christmas_feel_sad_dont/

r/AmIOverreacting •

u/Mindless-Gazelle-765 👍 683

AIO인데 엄마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고향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https://www.reddit.com/r/AmIOverreacting/comments/1qa3tw1/aio_but_my_mom_triggers_me_and_i_never_wanna_move/

r/AmlOverreacting •

u/Deslegs 👍 717

남편이 내가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한 것에 화가 났어.



요즘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남편은 속마음을 털어놓는 걸 좋아하지 않고, 제 불안감이나 어려움, ADHD에 대해서도 이해하려 노력하지

미용사가 둘 다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색을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한 보라색, 거의 라일락색이나 회색에 가까운 색을 골랐어요. 남편은 화려한 색깔의 머리를 싫어한다는 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확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제 남편이 집에 와서는 저를 못 본 척하고 말도 안 걸더라고요. 딱 한 번 "당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라색 머리가 해결해 주지는 않을 거야"라고 말하고는 가버렸어요. 오늘 아침에는 아이들 스케줄 얘기만 하고 나갈 때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남편이 싫어할 걸 알면서도 제가 상처받고 속상해하는 게 너무 과한 걸까요?

 https://www.reddit.com/r/AmlOverreacting/comments/1q9c24m/aio_husband_mad_i_died_my_hair_purple/

r/AmlOverreacting •

u/Lilasmiles 👍 959

**내가 과민반응하는 걸
까? 부모님이 허락 없
이 내 방을 청소했고,
생일 선물도 없어졌는
데, 마치 가스라이팅
을 당하는 기분이야.**

저는 부모님 댁에 살고 있고, 한 가지 분명한 규칙이
있어요. 제가 없을 때는 허락 없이 제 방을
청소하거나 제 방을 뒤지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새해 연휴를 맞아 여행을 갔는데, 떠나기 전까지

나아지면 정리하려고 일부러 선물들을 화장대 옆에 그대로 뒀어요.

그중 하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큰 생일 선물 가방이었는데, 그 안에는 상품권과 저와 제 파트너를 위한 샌디에이고 항구 체험권 두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실 그 티켓은 파트너의 절친이 선물해 준 거라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없는 동안 부모님께서 제 방과 옷장을 청소하고 정리해 주셨어요. 제가 많이 아팠으니까 저를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해 주고 싶어 하신 거라고 진심으로 믿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티켓도, 상품권도, 심지어 선물 가방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방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결국 제 방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니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고 하고, 가족들은 내가 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걸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물건들을 안전한 곳에 두지 않은 제 자신을

너무 속상해요.

이제 어떻게 남자친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화를 낼까 봐
두려워요. 아무도 악의는 없었는데, 이 일로 갈등이
생기는 건 원치 않아요.

너무 속상하고 솔직히 말하면 가스라이팅당한
기분이에요. 사과를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상황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https://www.reddit.com/r/AmIOverreacting/comments/1qakvfw/am_i_overreacting_my_parents_cleaned_my_room/

r/AmlOverreacting •

u/dabrina420 👍 1000

엄마가 우리 집에서 담배 피우는 걸 보고 AIO라고 하는 건가요?



https://www.reddit.com/r/AmlOverreacting/comments/1q9ltvx/aio_to_mom_smoking_in_our_house/

r/AmlOverreacting •

u/smol-pearl 👍 260

"단지 알레르기가 있을 뿐"이라며 가족들에게 신생아를 보러 오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제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저는 26세 여성이고, 일주일 전인 1월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1월은 감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집중 치료실(NICU)로 옮겨져 3일 동안 경과 관찰을 받았고, 저도 양막염(양수/자궁 감염)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받느라 입원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병원에는 면회객을 받지 않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처음 2주 동안은 부모님과 형제자매만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가족들에게 방문하고 싶은 날짜를 알려달라고 했고, 다른 방문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는 이번 주말에 오겠다고 했는데, 방문 전날 각각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온 가족이 재채기를 하는데 알레르기 때문인 것 같라며 알레르기약을 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냥 알레르기야, 애는 알레르기에 걸리지 않아"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출산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이제 겨우 아기를 되찾았는데 다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오빠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증상이 있으면 방문을 미루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오빠는 안 오겠다고 하면서 제가 너무 과보호하는 헬리콥터맘 같다고, "틱톡이나 인터넷 정보는 믿을 만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왜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두 사람에게 각각 따끔하게 설명했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증상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미리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굴어요.

생후 일주일밖에 안 된 아기가 "알레르기"나 콧물 때문에 아픈 사람들 곁에 있는 걸 원치 않는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https://www.reddit.com/r/AmlOverreacting/comments/1qejkdx/aio_for_telling_my_family_they_cant_come_see_my/

r/AmIOverreacting •

u/Straight_Dog9089 👍 1088

여자친구가 내 고향을 차버리겠다고 농담했 는데, 그 후에 헤어진 게 너무 과민반응일까 요?

저는 30세 남성이고 여자친구(28세)와 헤어졌는데, 지금 제가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여자애들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신체적인 폭력까지 이어졌어요. 걔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제 고향을 차는 거였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장난도 아니었어요. 선생님들이 안 계실 때

있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며칠 동안은 그 부위가 계속 아파서 걷는 것도, 앉는 것도 힘들었고, 정말 뭔가 영구적으로 망가진 건 아닌지 무서웠어요. 부모님이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응급실에 데려간 적도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선을 그었어요. 그 부위에 대한 농담이나 헐박은 절대 안 돼요. 여자친구를 포함해서 모든 연인에게 이 점을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소파에 앉아서 농담을 주고받다가... 내가 설거지 안 하고 싱크대에 그릇을 쌓아두는 걸 놀렸더니, 그녀가 웃으면서 "조심해, 안 그러면 네 불알을 걷어찰 거야."라고 말했어. 그러고는 웃으면서 농담이었다고 했지.

난 바로 입을 다물고 그런 말은 안 웃기다고 했어. 그런데 그녀는 사과는커녕 눈을 굴리면서 내가 좀 진정해야 한다면, 고등학교 때 트라우마에 아직도 시달리면 안 된다고 했어. 남자애들 다 거기 맞는데, 이제는 관찮아져야 한다고 했지.

그 말이 농담보다 훨씬 더 상처가 됐어. 내 고통은

무시하는 사람과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그녀는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고, 내 과거를 이용해서 자기 유머를 조종하려 든다고 했어.

그날 밤 바로 헤어졌어.

지금 그녀는 내가 별것도 아닌 농담 때문에 헤어졌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몇몇 친구들도 내가 너무 예민해서 좋은 관계를 망쳤다고 하더라.

하지만 난 그 농담이 문제였던 게 아니야. 내 한계를 알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고, 그러고 나서 내가 반응하는 걸 보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과잉 반응하는 걸까?

내가 과잉 반응하는 걸까?

https://www.reddit.com/r/AmlOverreacting/comments/1qd8xdf/am_i_overreacting_for_dumping_my_girlfriend_after/

r/AmIOverreacting •

 u/FL1967  1021

이웃인 AIO가 제가 집에 있는 동안 자신 의 "비상용" 열쇠로 제 차고에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이웃(58세 여성)은 남편의 절친이고, "비상시를 대비해" 서로 열쇠를 교환했어요. 참고로, 두 사람은 30년 동안 이웃으로 지냈고, 저는 10년 전에 이사 왔어요.

이번 주에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에요. 어젯밤에 저는 뒷마당에서 저녁을 굽고 있었어요. 해가 질

우연히 마주쳤어요. (차고 세 번째 칸은 남편의 버번 바예요.)

갑자기 부딪혀서 "어머, 뭐 하세요?"라고 물었더니, 그는 값비싼 버번 병을 가리키며 "아, 이거 꺼내려고 했어요. 아내 몰래 여기 숨겨 뒀는데, 아내가 집에 없어서 가져가서 바에 넣어두려고요."라고 말했어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네."라고만 했어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해요. 그는 제 차가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집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제 생각엔 그가 직접 저에게 차고에 들어가라고 물어보거나, 전화나 문자를 했어야 했어요. 마치 "여기는 당신 집이 아니에요. 당신 남편 집이에요. 비상용 키는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쓸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는 다른 모든 면에서는 정말 좋은 이웃이자 친구예요.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

 https://www.reddit.com/r/AmlOverreacting/comments/1qeebpz/aio_became_my_neighbor_used_his_emergency_key_to/

r/AmlOverreacting •

u/No-Emphasis-7952 👍 8

AIO, 대학 졸업하면 난 망할 것 같아.

저는 기계공학과 2학년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학생들 중 가장 평범하거나 평균 이하의 학생을 떠올려 보세요. 간신히 수업을 통과하긴 하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학생이요.

바로 저예요.

공부하고, 통학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성적도 좋지 않아요.

그래도 겨우 수업을 통과하고 있으니, 졸업까지 4년은 걸릴 것 같아요.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당연히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졸업할 때쯤이면 저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런 상황에 갇혀 있을까 봐 너무 두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엔지니어 될 거잖아, 지금은 취업 시장이 좋아"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어느 취업 시장도 좋지 않아.

그래도 다행히 빛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는 그게 유일한 긍정적인 부분이야.

 https://www.reddit.com/r/AmlOverreacting/comments/1qfdk9a/aio_i_think_im_fucked_when_im_out_of_college/

r/AmlOverreacting •

u/ZealousidealRatio299 👍 1217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본 내용 때문에 아들을 내쫓은 게 AIO(전적 책임)인가요? (AIO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저는 48세 여성이고, 자폐증이 있는 12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저와 아들 모두에게, 특히 아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아빠와 이혼했지만, 주말에는 아빠가 아들을 봐주고 저는 주로 평일에 아들을 돌봅니다. 아들의 전자기기 사용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모든 전자기기 사용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 집에서는 그렇습니다.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은 스폰지밥을 정말 좋아합니다. 처음 스폰지밥을 보여준 이후로 꼭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고, 특별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침대 시트, 베개, 샤워 커튼, 칫솔 등 스폰지밥 관련 물건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스폰지밥을 보다가 제가 채널을 바꾸거나 끄면, 아들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해서 저를 때리거나, 저나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싶다는 등의 욕설을 퍼붓습니다. 한번은 "스폰지밥 때문에"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스폰지밥 관련 콘텐츠를 못 보게 하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고요. 어차피 볼 때

도대체 어디서 이런 행동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집에서는 아들이 뭘 보는지, 아이패드로 뭘 하는지 전부 감시하고 있어요. 아빠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 집에서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전혀 모르는 척하더라고요.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아들이 아빠 집에 주말 동안 놀다 돌아온 후 휴대폰을 봤을 때였어요. 검색 기록에 폭력적인 검색어가 잔뜩 있더라고요. "스폰지밥이 스킨워드를 죽인다", "부모 죽이는 법" 같은 것들이었고, 심지어는 끔찍한 웹사이트까지 있었어요. 스폰지밥 캐릭터들이 피투성이에 난도질당한 그림들이 있는 사이트였어요. 아들이 또 "Squidward.exe"라는 걸 검색했더라고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바로 다음 날 아들을 치료센터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했고, 경과를 보고 일주일 동안 입원하기로 했어요. 제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건 아닌지 걱정돼요. AIO?

.....
 https://www.reddit.com/r/AmlOverreacting/comments/1q8ul6o/aio_for_sending_my_son_away_over_what_i_saw_on/

r/AmlOverreacting •

u/cherrycreamepie 👍 1917

AIO: 남자친구가 내 컵을 망가뜨렸어, 헤어질까 생각 중이야

솔직히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제 생각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26살 여자이고 남자친구(24살 남자)와 1년 넘게 동거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대체로 다정하지만, 몇 가지... 제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남자친구도 제 부분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둘 다 남부 출신이라 성격이 강해서 가끔 부딪히기도 해요. 하지만 함께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중 하나는 남자친구가 제 소중한 물건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조심해서 다룬다는 거예요. (저는

난다는 걸 알면서도 두 번이나 제 컴퓨터를 망가뜨릴 뻔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컵 하나가 문제예요. 이 컵을 9년 동안 간직해 왔고, 이사도 12번이나 함께했어요.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컵인데, 할머니께서 제 첫 타투(물속 풍경)에 맞춰 손수 그려주신 아름다운 컵이에요. 정말 숨 막힐 정도로 예뻐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식기세척기에서 발견했어요.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참고로, 저희가 사귀는 동안 설거지할 때마다 컵은 꼭 손으로 씻어야 한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어요. 너무 여러 번 말했더니, 마지막으로 말했을 때는 오히려 저한테 약간 짜증을 내면서, 다 알고 있으니 매번 말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아침,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 컵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저한테는 세상 전부나 마찬가지였는데. 아침 내내 울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친구 집에 가라고 했어요.

망가뜨린 건 처음이에요.

농담을 늘어놓고, 감정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미안해"라고만 해요. 세 번이나 나가달라고 말해야 했어요. 아마 평소에 싸울 때는 이렇게 심각하게 싸우지 않아서 제가 괜찮아지거나 진정하고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기다려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벌써 4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 진정이 안 돼요. 그가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고, 오늘 밤에는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의 기타 같은 소중한 물건들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그는 제 물건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걸 보면 정말 헤어질까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약: 남자친구가 할머니가 손수 그려주신, 제가 9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 온 컵을 망가뜨렸어요. 우리가 사귀는 동안 그 식기는 손으로만 씻어야 한다고 몇 번이고 상기시켜줬는데, 지난번에 다시 말했더니

무례한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서 헤어질까 생각
중이에요.

.....
 https://www.reddit.com/r/AmlOverreacting/comments/1qb6gеп/aio_boyfriend_ruined_my_cup_thinking_about_leaving/

r/AmlOverreacting •

u/Ok_Boysenberry_7535 👍 3936

AIO? 제 동료가 제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직장 밖에서 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좀 이상한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상한 건지 알고 싶어요.

저는 만성 통증을 앓고 있어요. 만성 통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자면, 통증을 1부터 10까지로 나타낸다고 할 때, 일반인들은 보통 2나 3 정도인데, 만성 통증 환자들은 6 정도라고 해요. 레고를 밟거나 팔꿈치를 부딪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잠깐이지만 극심한 8점짜리 통증이에요. 근육이 빠긋해서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불편한 느낌인데, 거의 매일 그래요. 어떤 날은 통증이 더 심하고, 아주 드물게는 4점 정도이거나 기적적으로 더 약한 날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활동적이고 잘 지내요. 지팡이도 가지고 있지만, 통증이 7점 이상인 날에만 사용해요. 지난 일요일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저는 정규직 외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신체적, 법적 장애가 있어서 혹시라도 편의 제공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서류를 이미 회사에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차량 번호판에는 장애인

최근 집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새 팀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상사인 에이미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동료 케이스와는 사이는 괜찮지만, 원래는 에이미의 보조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사업장이 확장되면서 직원이 더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케이스는 오랫동안 승진을 원해왔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승진에 관심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하. 제 직급에서 승진하면 정규직이 되는데... 저는 이미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일이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바쁘게 일하는 것도 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케이스는 열심히 일하지만, 제가 하려는 일을 자꾸 가로채거나 제가 먼저 처리하려고 할 때 선불리 나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더니 그녀가 "아, 제가 처리해 드렸어요, OP님.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좀 짜증이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 그래도 굳이 안 해주셔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미에게 이 이야기를 했었죠. 저도 제 몫을 하고 싶은데, 케이스가 저보다 먼저 일을 끝내려고 서두르면 힘들고 중복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애초에 저희는 업무를 공정하게 나누기로 했잖아요. 에이미는 케이스에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하는 편이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는 건강 문제가 있어서 가끔 지팡이가 필요하지만 항상 필요한 건 아니에요."라고만 말했어요.

에이미는 제 상황을 잘 이해해 줬어요.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맡아줬죠. 정말 고마웠고, 모든 일을 일찍 끝냈어요. 그래서 무전으로 혹시 더 할 일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케이시가 괜찮다고 해서 저는 평소에 뒷전으로 미뤄두던 행정 업무들을 처리했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행정 업무 목록부터 처리할게"라고 답했는데 케이시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에이미가 제게 고맙다고 하면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인해줬어요.

어제(화요일)에도 지팡이가 필요했는데 상황은 비슷했어요. 행정 업무는 대부분 끝났고 에이미는 정말 안심한 표정이었어요. 결근하지 않고 와서 모든 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케이시는 자기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케이시가 육체적인 일을 처리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함께 주차장까지 걸어갔는데, 에이미가 제 차가 어떤 차냐고 물어봐서 제가 가리켰어요. 그러자 에이미가 "그런데, 너 장애인 아닌 거 알아."라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에이미는 다시 한번 말하면서 "그러니까 내일은 지팡이 쓰지 마, 알았지?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그냥 내일은 지팡이 쓰지 마."라고 했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지팡이를 가져갔는데 솔직히 항상 쓰지는 않았어. 예를 들어, 테이블에서 바까지 가서 음료를 더 주문할 때나 조이와 작별 인사를 하려고 일어설 때 지팡이를 쓰지 않았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평소보다 통증이 심해서 지팡이를 챙겼어. 에이미한테 지팡이는 가져왔는데 잠깐씩은 괜찮으니까 코치로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지. 본업에서 너무 재밌게 일하느라 케이시 생각은 전혀 안 했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장소에 도착했는데 케이시가 내 지팡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졌어. 마치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샌프란시스코 49ers에게 졌을 때 내 얼굴처럼 말이야. 진짜 엄청 화났어. 모두에게 인사를 했는데 케이시는 날 완전히 무시했어.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을 받았고, 그녀는 비꼬는 말투로 "지팡이 짚고도 그 일 할 수 있겠어?"라고 말했어. 에이미조차도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볼 정도였죠. 저는 괜찮다고 하고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후 각자 일을 시작했어. 그런데 그녀는 또다시 저보다 먼저 일을 끝내려고 서두르면서 무전으로 "무리하지 마, OP. 난 x 일을 끝냈어."라고 말하더군요.

한 시간쯤 전 일이 끝나고 주차장까지 같이 가는데, 그녀가 다시 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영상 속 인물은 바로 저였어요. 어젯밤 조이와 함께 술집에 있는 제 모습이었죠. 저는 "왜 제 영상이 있어요? 이상하네요."라고 말했어. 그녀는 증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뭘?"이라고 묻자, 그녀는 제가 "하루 종일 일에 지친 척" 하다가

뭐라고요? 저는 뇌성마비 진단은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싶었어요. 네, 친구를 안아주려고 일어설 수도 있고, 새 음료를 주문하려고 세 걸음 정도 걸어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앉을 의자 없이 허리를 숙여 서랍 맨 아래 칸을 정리할 수는 없어요.

뇌성마비는 그냥 우산 같은 거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경험과 능력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에이미가 제게 일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제가 알아서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에이미는 제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내일 지팡이 안 짚어. 진심이야. 아니면 채드한테 갈 거야."라고 말했어요. (채드는 에이미의 상사예요.)

제가 "뭘로요?"라고 물었지만, 에이미는 이미 저에게서 등을 돌리고 차에 타버렸어요.

정말 이상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채드는 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텐데, 그의 남자친구도 뇌성마비가 있거든요. 제가 "들킬까 봐"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상해서 에이미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채드에게도 참조로 보내려고 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미리 설명하려는 게 미친 걸까요? 저는 원래 불안하고 편집증적인 편이라 괜히 과민반응하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요.

수정: 이메일 보냈고, 제가 이상한 기분을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차단할 거예요. 솔직히 그런 헛소리에 시간 낭비할 생각 없어요.

수정 2: 세상에, 알림이 엄청 많네요...

커피가 너무 많아서 다 못 마시겠지만, 여기서 다 답장하려고 수정할게요...

아침인데 아직도 통증이 7 정도예요. 게다가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지팡이를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에이미한테 미리 문자 보내서 오늘 할 일들을 생각해 두라고 했어요.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제 레고 통증 척도 아이디어는 실제 통증 척도에 맞지 않았어요. 레고를 밟는 게 아프면서도 웃긴 상황이라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임상적인 통증 차트를 만들려는 건 아니고요. ㅎㅎ 만성 통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자유롭게 상상 속 시나리오를 그려보세요.

그리고 "CP라는 용어를 쓰지 마세요"라는 애매한 댓글은 잘 모르겠네요. 이 글에서는 만성 통증을 뜻하는 용어예요. 그 맥락 안에서 쓴 거니까요. 🙄

 https://www.reddit.com/r/AmlOverreacting/comments/1qd6kts/aio_my_coworker_took_video_of_me_outside_of_work/

r/AmlOverreacting •

u/Muted-Cell8646 👍 1

AIO? 엄마가 나보고 악하다고 해서 부모님 과 연락을 끊었어요. (AIO?)

최근에 부모님과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무슬림이시고 저는 더 이상 무슬림이 아니지만, 부모님은 모르세요. 저는 이슬람의 어리석은 규칙들이 너무 싫어요. 제가 누워서 감자칩을 먹고 있었는데, 아빠가 이슬람에서는 누워서 먹는 게 안 좋다고 앉아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슬람에서 금지된 왼손으로 먹는 걸 보시고는 또 뭐라고 하셨죠. 엄마는 제가 여동생이랑 장난치다가 여동생 감자칩을 뺏어 먹었다고 저를 미쳤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항상

방으로 들어가면서 속으로 짜증을 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통제당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 있는데 엄마가 저를 악마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지, 그게 제겐 마지막 일이었어요.

몇 주 전에 엄마가 자식들보다 아빠를 더 좋아한다고 고백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슬프고 속상했지만, 티 내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나보다 자신을 학대한 멍청한 아빠를 더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다고 상상해 봐.
ㅋㅋㅋㅋㅋ

어쨌든, 일주일 전부터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우리 애들 중에서 내가 제일 착해. 큰오빠랑 언니처럼 부모님을 무시한 적도 없고, 항상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는데, 오빠는 아예 부모님을 무시해 버렸어. 그런데도 내가 우울해서 혼자 있고 싶어지면, 난 악당 취급을 받고 가족의 "적"이 돼. 어릴 적 부모님은 장난감도 사주지 않았고, 선물도 안 줬고, 생일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내 안에 억눌린 원망이 너무 많아. 당연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내가 혼자 있는 게 잘못이라고

그런데도 엄마랑 연락을 끊어서 엄마를 힘들게 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어. 내가 엄마를 위해 해준 모든 걸 무시하고, 10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오빠처럼 나를 악당 취급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참고로 저는 겨우 18살이고, 대학 때문에 인생이 엉망진창이에요. 너무 우울하고, 부모님은 제 안부를 묻지도 않고 바로 저를 악당이라고 몰아세웠어요. 아빠는 돈 달라고만 찾아오시고요. 정말 지쳐요.

🔗 https://www.reddit.com/r/AmIOverreacting/comments/1qffxc8/aio_stopped_talking_to_my_parents_because_my_mom/

r/AmIOverreacting •

u/Jaded_Sea2972 👍 588

상사가 준 선물에 대한 AIO



https://www.reddit.com/r/AmIOverreacting/comments/1qemf5p/aio_about_the_gift_my_boss_gave_me/

r/AmlOverreacting •

u/throwawayhinutcase 👍 35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AIO로 결제되나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지쳐서요. 저는 커밍아웃하지 않은 동성애자이고, 현재 극도로 동성애 혐오적인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73세이시고 위궤양이 있으시며, 폭력적인 분은 아니지만 가끔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저는 집세를 내고, 청소와 빨래의 절반을 하고, 모든 식사를 준비하고, 전반적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모두 연락을 끊거나 거의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면서 자녀를 둔 여동생만 예외입니다. 저는 형제자매들이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연락을 끊거나 거의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 이유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자신이 죽으면 모두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소리치거나, "세상 사람들은 너무 역겨워. 여호와께서 곧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실 거라서 정말 다행이야."라고 장황하게 말씀하실 때, 저는 혼자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저희 엄마는 체격이 꽤 큰 편이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키가 165cm 정도에 몸무게가 90kg 정도 나가시는데, 저는 키가

잡아당기며 끌고 다니시곤 해요. 왜 그러셨는지 이해는 하지만,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21살쯤 됐을 때 엄마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제가 진정하려고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저를 밀쳐내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날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엄마 손을 잡고 밀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어요. 엄마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엄마가 제 말을 잠깐이라도 들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어요.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제 옆구리를 열두 번쯤 가볍게 치면서 저를 위층 샤워실로 끌고 가서 물을 뿌리셨어요. 제 잘못된 건 알지만, 정말 속상했어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제가 설명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가해자"라든지 "신고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뼈가 부러지거나 눈에 띄는 멍이 든 적도 없으니 학대는 아니에요. 그냥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부인인데, 제가 그 트라우마를 자극한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3월에 언니랑 휴가 갈 예정인데, 짐을 하나 더 챙겨서 집에 안 가면 과잉 반응일까요?

https://www.reddit.com/r/AmlOverreacting/comments/1qfe8xd/aio_if_i_just_go_on_holiday_and_not_come_back/

r/AmlOverreacting •

 u/Great-Routine9964  614

AIO: 남편이 절친한 여자 친구를 만나러 혼자 여행을 가고 싶 어해요.

업데이트: 이미 상담사에게 연락해서 상담 전까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댓글에서 여러 번의 여행에 대한 언급을 봤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2월 여행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와 단둘이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은 100% 사실입니다.

지내지 못한 "여자 절친"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연과 과거사가 있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녀는 이기적인 친구로, 항상 "위기에 처한 척"하며 남편이 자신을 항상 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슈퍼맨 콤플렉스가 있어서 남을 돕고 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합 때문에 수년 동안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는 남편이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제게 답장을 하지 않거나, 약속 시간보다 훨씬 늦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설명할 최근 문제를 제외하고) 폭설이 내리는 다른 주에서 어지럼증을 느낀 그녀를 "구하러" 낮 시간에 퇴근한 일입니다. 그와 그녀의 사촌, 그리고 친구 한 명이 함께 가야 했는데, 그는 악천후 속에서 낯선 사람에게 우리 차를 운전하게 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때는, 그가 차 안에 숨어서 그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녀는 지난 가을에 다른 시간대로 이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적어도 두 번은 저를 방문했습니다.

12월 초, 단체 모임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그녀가 사는 도시로 비행기를 타고 갈 계획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불과 2주 후에 출발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전에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가 그 일에 대해 나와 상의도 없이, 그리고 내가 싫어할 걸 알면서도 내 반응을 통제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꺼낸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싸운 끝에 그는 앞으로 1년 동안

그런데 며칠 전, 올해 계획 중인 여행과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중 하나가 그녀가 사는 도시에 함께 가는 거였어요. 이 여행은 어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거고, 그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심지어 그녀가 이사 간다고 발표하기 전에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제가 없더라도 그녀를 만날 수 있는 날을 정해두라고 했죠.

그런데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3월이나 4월에 혼자 그녀를 만나러 갈 거야."라고 말했어요.

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과 다르다는 둥 빙빙 돌려 말했죠. 그는 제가 통제적이라고 하면서, 예전에 1년 동안 기다리기로 "약속"했던 건 저를 달래고 그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서였다고 인정했어요. 저는 그에게 당신이 그녀의 들러리 남자친구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이번 여행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신뢰마저 무너진 기분이에요. 남편이 거기 가서 우리가 합의한 사항들을 제대로 지킬까요? 아니면 그냥 제 말을 막고 자기 마음대로

남편의 불륜과 그가 여자를 혼자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해 제가 너무 과민반응하는 걸까요?

.....
https://www.reddit.com/r/AmlOverreacting/comments/1qeu4hr/aio_my_husband_wants_to_take_a_solo_trip_to_visit/

r/AmlOverreacting •

 u/Mysterious-ASL  10603

AIO - 내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더 일찍 밝혔어야 했을까?

Yesterday 7:02 AM

Hi [REDACTED] I feel like your being deaf should have come up much earlier in this conversation. It bothers me that you were so verbose during these conversations, but chose to omit something so essential.

[REDACTED] Best of luck to you.



 https://www.reddit.com/r/AmlOverreacting/comments/1qbkumi/aio_should_i_have_disclosed_that_im_deaf_earlier/

r/AmIOverreacting •

u/PleasantProcedure732 👍 55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제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4살짜리 아
이를 데리고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어 하
세요.**

AIO?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 없이 4살 딸아이를 데리고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어 하세요. 저는 시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출산 직후라 산후우울증이나 산후조리로 힘들어할 것 같아요. 시부모님께서 저와 남편이 아기와 유대감을 쌓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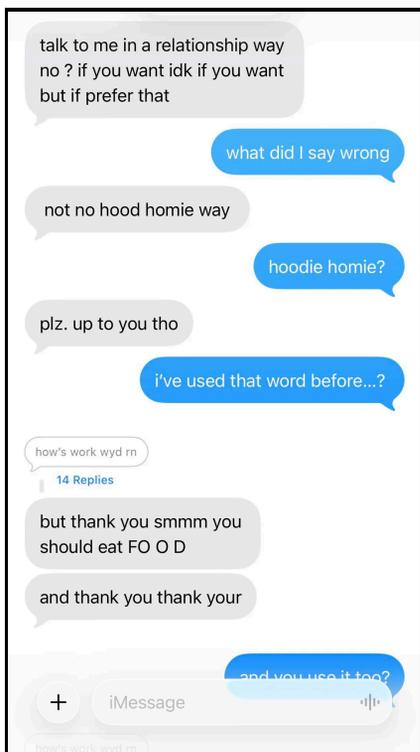
같아요. 저희는 매년 크루즈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크루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지, 그리고 아이에게 가려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걱정돼요. 제 불안감이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끔찍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크루즈 여행은 제 마음을 편하게 해 줄 것 같지 않아요. 출산 후유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번 일은 저를 더 힘들게 할 뿐일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아이를 절대 보내지 않을 거예요. AIO?

 https://www.reddit.com/r/AmlOverreacting/comments/1qfexyd/aio_my_in_laws_want_to_take_4_year_old_on_cruise/

r/AmlOverreacting •

u/Jazzlike-Ad6372 👍 2030

남자친구가 내가 마치 친구처럼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기분이 상했는지 이제 나를 무시하고 있어.



모든 상황은 스크린샷에 나와 있어요. 그 때문에 그가 기분이 상했고, 이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 문자도 무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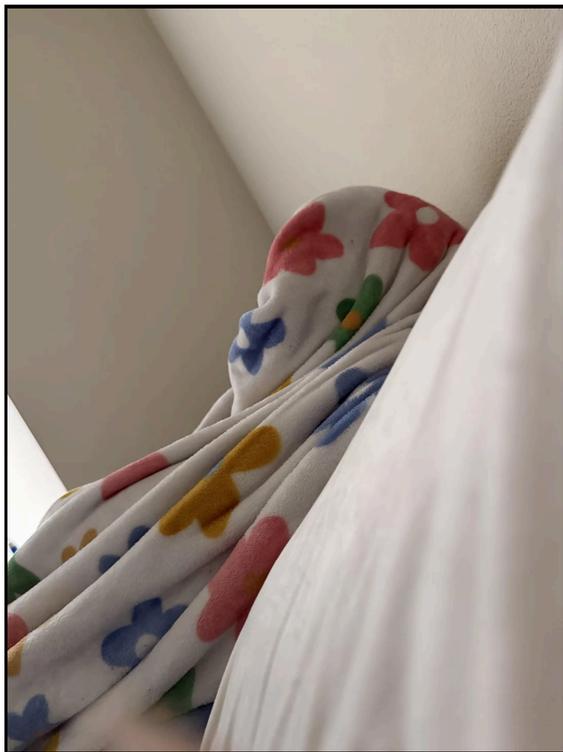
20대인데, 저는 이게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눈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는데 왜 굳이 이 일을 들먹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너무 심하게 반응했나요? 마지막 문자들이 과잉 반응이었을까요?

.....
https://www.reddit.com/r/AmlOverreacting/comments/1qerey4/aio_boyfriend_told_me_i_text_him_like_hes_a_homie/

r/AmlOverreacting •

u/blairwaldorff 👍 16866

올인원?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자요.



마치 미라처럼 온몸을 담요로 꽁꽁 싸매고 있어요. 숨이 막히거나 할까 봐 늘 걱정이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자는데, 심지어 얼굴을 담요 두 장 이상 감싸기도 해요. 그러면서 "기분 좋다"고 하네요. 한밤중에 갑자기 깨어나서 옆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AIO(All-In-On, 아기 침대)? 아이는 제가 호들갑 떠는 거라고 해요.

.....
 https://www.reddit.com/r/AmlOverreacting/comments/1q96lb8/aio_this_is_how_my_boyfriend_sleeps/

r/AmlOverreacting •

u/centaurella 👍 1153

AIO— 아무래도 내가 회사에서 냄새나는 사람인가 봐

세상에, 제가 이런 글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지만,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요.

퇴근 후,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동료가 저를 따로 불러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제 몸에서 땀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관리자에게 알려져서 제가 "냄새"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자신이 직접 말하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매일같이 냄새가 난대요.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저는 위생 관리를 철저히

씻고, 옷도 꼼꼼하게 세탁하고, 같은 옷을 두 번 입기 전에는 꼭 냄새를 맡아보고 세탁해요. (회사에서 정해진 옷을 입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입어야 할 때도 있거든요.) 데오드란트도 항상 뿌리고, 향수도 즐겨 써요. 사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제 몸을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사촌(전반적으로 심술궂고 질투심 많은 사람)에게 딱 한 번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은 것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냄새는 제게 깊은 콤플렉스가 되었고, 최대한 위생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대화하는 동안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부끄럽다고 인정했지만, "알았어요, 냄새 안 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병원에 가봐야 할지도 몰라요."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동료는 "내가 너라면 당장 병원에 갈 거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무실을 나설 때, 마치 제가 안에 갇혀 있었으니 환기가 필요하다는 듯이 "이 문 열어둘게요."라고 말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눈물을 펄펄 쏟았습니다. 남자친구와 부모님께 제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애원했는데, 모두 "아니, 냄새 안 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만큼이나 놀라셨고, 혹시 그 동료의 코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셨습니다.

솔직히 지금 너무 불안해요.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제 냄새를 못 맡는 건 아닌지, 사실은 제 몸에서 정말 심한 악취가 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 동료는 매일 그런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창피하기도 해요. 여기 게시판에서 냄새 나는 동료에게 몸 냄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역겨워한다고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바로 그 동료였던 거죠.

정말이지, 이 일 때문에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고 모든 게 의심스러워요. 다시는 직장에 가고 싶지 않아요.

https://www.reddit.com/r/AmIOverreacting/comments/1qf2fa6/aio_apparently_im_the_stinky_one_at_work/

r/AmlOverreacting •

 u/mooresmistress  583

여자친구가 샤워실에서 서 쫓아낸 게 너무 과 민반응일까요?

저는 (23세 남성) 여자친구(22세)와 사귀고 있으며, 그녀는 종종 제 집에서 밤을 보냅니다. 어제 우리는 함께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샤워를 할 때 흔히 그렇듯이 저는 샴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아직 샴푸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샴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리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샤워실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룸메이트가 두 명 있는데, 이 황당한 상황을 설명하고 여자친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서둘러 샤워실에서 나와 반바지로 갈아입고 룸메이트의 샤워실을 빌려 썼습니다. 방으로

할 일이 있어서 결국 잠자리에 들었고, 깨어보니 여자친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여자친구를 무시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계속 제게 전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문자 내용은 샴푸 얘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사준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또 나중에는 집에 와서 같이 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자고 애원하는 내용까지 다양했어요. 제가 그녀와 헤어지는 걸 고려하는 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과민반응일까요?

참고로, 그냥 헤어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간단하게 들리는지는 알지만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새 가정을 꾸리고 저랑 연락도 안 하셔서 저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인이나 친구 관계를 끝낸 적이 없어요.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요.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수정: 댓글에서 본 내용들을 빼먹고 말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처음 글을 올리는 거라 뭘 해야 할지 잘 몰라서요. 업데이트하려고 네 번이나

- 샤워용품은 전부 제 거예요. - 병을 다 쓰지 않았어요. 절반 이상 남았어요. - 그 사건 이후로 그녀는 제게 여러 번, 제가 기다리지 않은 게 무례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업데이트: 네, 제가 과잉 반응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솔직히 이걸 그녀가 했던 다른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미쳐가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와 헤어질 생각이예요. 헤어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 다른 스토리를 올릴 만한 곳을 추천해 주실 분 있나요?

 https://www.reddit.com/r/AmIOverreacting/comments/1qf54fb/am_i_overreacting_since_my_gf_kicked_me_out_of/

r/AmlOverreacting •

u/1bunchofbananas 👍 21025

AIO 내 남자친구는 어제 내 생일 축하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



남자친구(38세)가 어제 제 생일에 축하 인사를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케이크랑 나초 보내주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보내주더라고요. 이 사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계속

결까요? 이런 상황에 화를 내면 안 되는 걸까요?

https://www.reddit.com/r/AmlOverreacting/comments/1qbqzm9/aio_my_bf_didnt_even_say_happy_birthday_to_me/

내가 과잉 반응하는 걸까?

어떤 일에 과잉 반응했는지, 아니면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브레딧입니다.

커뮤니티 규칙

1. 서로 존중하기

예의를 지켜주세요. 인신공격은 금지입니다.

2. 스팸 금지

광고나 도배글을 올리지 마세요.

3. 주제 준수

커뮤니티 주제에 맞는 글만 써주세요.

4. 개인정보 보호

자신의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마세요.

5. 가이드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준수해주세요.

r/whatif •

 u/IDontKnowMyUsernameq  0

만약 예수가 여자였다면 어땠을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줄어들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가장인 아버지가 기독교인이 되면 자녀들이 기독교인이 될 확률이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될 확률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과 그분의 사명에 삶을 바칠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여인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대상으로 숭배받게 될까요?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p0pbvi/what_if_jesus_was_a_woman/

r/whatif •

u/Defiant-Junket4906 👍 14

오늘날의 기술 중 일부가 향후 50년 안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보통 미래가 무엇을 만들어낼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저는 미래가 조용히 무엇을 뒤에 남길지 궁금합니다.

그 기술들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 기술의 근간이 되는 전제들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서서히 불필요해지고, 나중에는 설명하기조차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q3oe7m/what_if_some_of_todays_technologies_simply/

r/whatif •

 u/AgreeableTravel3720  3

만약 파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 떻게 될까요?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파리를 100마리씩이나
쫓아낸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파리는 제 입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파리가
그렇게 큰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꽃가루를
옮기긴 하지만, 그건 별도 하는 일이잖아요.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p1xipv/what_if_all_flies_disappeared_from_existence/

r/whatif •

 u/lifeisg0d  5

만약 여성의 탈모 비율도 남성과 거의 같은 비율이라면 어떨까요?

유행이 되면 우리 모두 대머리가 될까요? 모두 모발 이식을 받고 가발을 쓰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q3xuay/what_if_roughly_the_same_percentage_of_women_as/

r/whatif •

 u/IDontKnowMyUsernameq  3

만약 레딧이 완전히 영상 기반으로만 운영 된다면 어떨까요?

모든 게시물이 당신이 말하는 영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글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모든 댓글은
누군가가 당신의 게시물에 답하는 영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p22ku0/what_if_reddit_was_entirely_video_based/

r/whatif •

 u/Equal-Sun8307  4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능력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고려 사항

이 형태의 텔레파시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동안에만 생각을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연한 눈맞춤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짧게 엿볼 수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지속적이며 끌 수 없지만, 특정 상황을 피하면 발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p264y1/what_if_you_could_read_someones_mind_by_direct/

r/whatif •

 u/braamohh7  29

귀에서 이명이 울릴 때마다 운명이 바뀐다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문맥상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운명이 바뀐다면 어떨까요?
그 원인이 당신의 행동 때문이든, 다른 사람이 한 행동 때문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p402gi/what_if_everytime_your_ear_rings_your_fate_changes/

r/whatif •

u/Serious-Affect-8538 👍 10

만약 당신이 지구로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 까요? (이 부분은 문 맥상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약 지구 핵이 용암이 아니라 지구를 관통하는 가상의 구멍이 있다면, 그 중간에 갇히게 될까요?"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뉴턴이 발명한 중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평평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론적으로는 지구를 뚫고 호주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 지점에 도달한 후에는 중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면,

A. 호주에 도착한다. B. 중간에 갇힌다. C. 기타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q4iozx/what_if_you_jump_into_earth/

r/whatif •

 u/Inevitable-Angle-793  21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유용할까? 그리고 누가 그 능력을 알아챌까?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유용할까요? 그리고 누가 그걸 알아챌까요?

추가 질문: 꿈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꿈 내용까지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q4rmi6/what_if_i_had_ability_to_enter_other_peoples/

r/whatif •

u/Manofpans44 👍 52

만약 영국이 미국 독립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어땠을까?

최근 켄 번스의 미국 독립 혁명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만약 영국이 승리했다면 오늘날 미국의 모습이 어땠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캐나다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 같고,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같은 여러 지도자들이 반역죄로 재판을 받았을 것이며, 남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p4t3h3/what_if_britain_has_won_the_revolutionary_war/

r/whatif •

u/Danthrax81 👍 32

만약 당신이 일해야 했던 마지막 세대라면 어떨까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된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고, 사회가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모든 사람이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집을 갖고 먹고 마시고 싶은 것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게 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55세이고 집 대출금을 갚고 공과금을 내기 위해 평생을 바쳐 고된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대와 이십대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걱정 없이 마음껏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쓸모없고 무의미한 시스템에 쏟아부은 겁니다.

저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pdzy8d/what_if_you_were_the_last_generation_that_had_to/

r/whatif •

 u/DreamFighter72  2

만약 로봇이 전쟁에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요즘 로봇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상업적 용도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로봇들이 너무 발전해서 군대가 군사 작전이나 전쟁에 투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q6opwj/what_if_robots_were_used_to_fight_wars/

r/whatif •

u/Bigjoemonger 👍 152

만약 주요 대도시 지역들이 각각 독립적인 행정 구역으로 분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주 세금이 시골 지역에서 시카고로 너무 많이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 글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만 때문에 주를 반으로 나누거나 인디애나 주와 합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시골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큰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필요를 가진 두 지역을 같은 경제 체제

그렇다면 인구 밀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대도시 지역은 자체적인 정부와 예산을 가진 자치 도시 국가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나머지 주는 자체적인 정부와 예산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비판적인 의견은 삼가 주세요. 그냥 재미로 하는 질문입니다.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pinl94/what_if_major_metropolitan_areas_became_their_own/

r/whatif •

u/fxst-jxllybean 👍 5

만약 우리가 스포일러를 경험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스포일러를 전혀 경험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어떤 형태의 스포일러든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드라마의 흔한 대사라 할지라도, 그 드라마나 에피소드를 보지 않았다면 들을 수 없겠죠.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구절 대신 "예수"라는 단어 뒤에 잡음만 들리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게임 예고편, 책 뒷면에 있는 발췌문은 예외로 할 수 있겠지만, 경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나 언급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책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고 나면, 비로소 그동안 숨겨져 있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q9n5nw/what_if_we_couldnt_experience_spoilers/

r/whatif •

u/LeatherTangerine8579 👍 5

**만약 풍선껌이 그리스
신화 시대에 발명되었
다면 어떨까요? 아마
아테나와 아라크네는
풍선껌 불기 대결을
펼쳤을지도 몰라요. -**

거미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아라크네는 뛰어난 직조공이었지만, 자신이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만했습니다. 마치 레지나 조지나 트리나 베가처럼 말이죠. 결국 여신

아테나의 직조 솜씨는 웅장했지만, 아라크네의 작품은 신들을 외설적인 상황에 묘사한 것이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끔찍한

비열한

끔찍한

아테나는 처음에는 아라크네를 봐주려고 했지만, 분노가 극에 달해 결국 폭발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아테나는 아라크네를 세상 최초의 거미로 변신시켰고,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거미목 (arachnid)"이라는 용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만약 그 시대에 풍선껌이 발명되었고, 아테나와 아라크네가 풍선 불기 시합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q9hd0i/what_if_bubble_gum_were_vented_in_greek/

r/whatif •

 u/k1410407  5

만약 기원전 29만 5천년에 산업화가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수많은 인류 종들이 공존하며 금속과 같은 귀중한 자원을 발견하면서 중세 및 식민지 시대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게 된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세상은 얼마나 빨리 변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인구를 늘리고 공존했을까요, 아니면 서로를 멸종시키고 다른 인류 종들을 몰아냈을까요? 이 고대 산업 시대의 지구에는 어떤 국가와 문화가 형성되었을까요? 인류 종들이 여러 문명으로 분화하여 매머드와 같은 거대 동물을 이용해 돌과 곡물로 도시를 건설하는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세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현실 세계의 가속화된, 더 이른 시대였을까요? 고대 아프리카-유라시아 제국이 훨씬 더 일찍 존재했던 세상이었을까요?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q9e77p/what_if_industrialization_occurred_during_295000/

r/whatif •

 u/xthe_official  6

만약 2026년부터 인류가 진지하게 화성으로 이주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이주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일까, 아니면 과거의 모든 문제들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일까?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q7rysx/what_if_starting_in_2026_humans_seriously_began/

r/whatif •

 u/Defiant-Junket4906  13

만약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인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배적인 종입니다. 하지만 만약 인류가 예고 없이 사라진다면, 어떤 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이미 번성하고 있는 동물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종일까요?

인간의 영향이 사라진다면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배력은 지능, 적응력, 개체 수, 아니면 전혀 다른 요소에서 비롯될까요?

인간이 없는 세상에서 지배적인 종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q79f44/what_if_all_humans_suddenly_vanished_from_earth/

r/whatif •

u/TutsTots 👍 6

만약 우리 인간이 음식 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제목에서처럼, 만약 우리 인간이 음식이나 유기물을 전혀 섭취할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먹는 것은 매우 비싸고, 우리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자원(돈)을 소비합니다. 저는 먹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이 너무 비싸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해도, 우리 몸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저칼로리로도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진화했다면, 100칼로리짜리 식사 한 끼만으로도 하루 종일 문제없이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좀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음식은 너무

곳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생각해 본 '만약에'입니다.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q8bhk1/what_if_we_humans_never_had_to_eat/

r/whatif •

 u/Aromatic-Bell-7085  34

만약 당신이 2000년으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2026년에서 왔다는 것을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q79ld6/what_if_you_were_transportd_back_in_year_2000/

r/whatif •

u/Medium_Hope_7407 👍 8

만약 삼쌍둥이가 살인을 저지른다면? (이 부분은 문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특히 애비와 브리트니 헨젤 자매를 생각하고 있어요. 애비는 얼마 전에 결혼했죠. 두 사람 모두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던데, 만약 애비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냉혈하게 총으로 쏘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비가 처벌받으면 아무 죄 없는 동생 브리트니까지 처벌받게 되는데, 어떻게 애비가 기소되고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mitted_murder/](#)

r/whatif •

u/Johnyme98 👍 34

만약 인류가 어느 날 사라진다면, 어떤 종이 다음으로 지배적인 종이 될까요?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인류가 지구에서 사라지고, 지구가 100년 동안 진화한다면, 어떤 동물 종이 지배적인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q8xqee/what_if_humans_disappear_one_day_what_species/

r/whatif •

u/Imma_Lick_That 👍 8

만약 불멸이 단 하루 만에 태블릿 하나로 가능해진다면 어떨까 요?

매일 복용하면 노화 과정을 멈추는 합성 약물을 누군가가 개발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조 과정은 저렴하고 복제하기도 쉽습니다. 기본적인 장비와 화학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죠. 최고 입찰자에게 팔아 수십억 달러를 벌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대신 모든 사람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조 과정을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시 금지될까요? 정보를 검열하려 들까요? 거대 제약 회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구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노화로 죽지 않게 된다면 사회는 급격히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qascw8/what_if_immortality_was_just_a_tablet_a_day_away/

r/whatif •

 u/AdBig3211  16

만약 지니가 존재하고, 당신에게 세 가지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빌겠어요? (소원을 더 달라는 건 빼고요 ㅎㅎ)

아마도 좋은 정부를 바랄 것 같아요. (필리핀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가끔 너무 부패해서 힘들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직장에서 큰 월급을 받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아시겠죠?)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qa1wtj/what_if_genie_exists_and_you_can_have_3_wishes/

r/whatif •

 u/PsychologicalCry817  14

만약 낯선 사람이 당신 집에 숨어 있고, 당신이 그 사실을 몰래 알고 있다면 어 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 집에 있는데 어둡고 늦은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뭔가 있어요. 누군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2) 만약 그들이 옷장 속에 숨어서 엿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싸울 준비를 할까요? 무엇을 사용할까요?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qbs7xo/what_if_some_stranger_was_hiding_in_your_house/

r/whatif •

 u/Darth_Azazoth  7

만약 환자를 때려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면 어떨까요?

이 시나리오에서 질병은 부상 이외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https://www.reddit.com/r/whatif/comments/1qc9659/what_if_you_could_cure_any_illness_by_beating_it/

만약에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라는
질문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서브레딧입니다.

커뮤니티 규칙

1. 서로 존중하기

예의를 지켜주세요. 인신공격은 금지입니다.

2. 스팸 금지

광고나 도배글을 올리지 마세요.

3. 주제 준수

커뮤니티 주제에 맞는 글만 써주세요.

4. 개인정보 보호

자신의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마세요.

5. 가이드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준수해주세요.

r/FuckAI •

u/Auroriia 👍 59

AI 아트와 AI 애니메이션은 실제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 디자이너들에게 모욕적인 행위이며, 예술가들이 사람들에게 화내지 말라고 하거나 "감정을 숨기라"고 말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정말 지긋지긋해요. 계속해서 듣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AI가 더 낫지", "AI가 더 창의적이고 재밌어", "이 그림들은 AI가 만든 거야, 제발 이런 사람들 비판하지 마"

이 예술가들은 그냥 멍청한 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블루스카일로 몰려드는 건가요? 다른 AI 사용자들과 경쟁해서 망하게 하려는 건가요? 왜 갑자기 모두가 이 형편없는 AI 작품들을 옹호하는 거죠? 왜 저는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죠? 핀터레스트, 유튜브, 블루스카이, 트위터, 데비안아트, 아트스테이션처럼 AI로 범벅된 쓰레기 같은 작품들에서 어떻게 실력을 키울 수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어이가 없네요.

.....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ii062w/ai_art_and_ai_animation_is_an_actual_spit_in_the/

r/FuckAI •

u/JustANickName_ 👍 16

"AI 콘텐츠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간의 개입이 있다" 네, 물론이죠, 틀림없어요...

원래 그들은 "AI는 본질적으로 인간처럼 학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AI가 아무런 감각이나 자각 없이 학습하고 생성한다는 차이점을 설명하는 댓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형적인 AI 전문가의 말투인 것 같네요...

"내가 얼마나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지 봐봐. 완전히 엉망이 아닌 게 나올 때까지 이미지를 마구 생성해내는 거야."

[n_involvement_than_people/](#)

r/FuckAI •

 u/DraftAbject5026  14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최근 들어 이곳이 마치 메아리치는 방처럼
변해버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믿든 안 믿든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적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정말 싫어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멍청한
인공지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똑똑해야 합니다.
그들의 수준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영광과
명예로 승리해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인공지능이 나쁘다고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행복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끈기 있게 나아갈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i1xt2d/we_have_a_problem_here/

r/FuckAI •

u/Book1sh 👍 26

직장에서 AI를 사용 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입사한 이후로 저는 AI 사용,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상사는 그 점 때문에 저를 놀리곤 하죠.

저희 부서 전체가 점심시간에 진행되는 (정말 싫지만) "AI 쿼리 엔지니어링" 교육에 초대받았습니다.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가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ChatGPT를 업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 윤리적 입장이 바뀌었다고 상사가 생각할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안 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왜 사람들이 의존하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제 일을 더 잘하고 싶은 거지, 편법을 써서 점점 못하는 건 싫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in3dq4/under_pressure_to_use_ai_at_work/

r/FuckAI •

[deleted] 👍 11

요즘엔 신자유주의적 예의범절을 싫어 하면 일론 머스크의 팬이 되는 것 같더 군요.

제가 자멸적인 나치 농담을 했는데, 제대로 변명하지 못했고, 그 맥락에서 벗어난 스크린샷이 [defendingaiart](#)에 올라가서 제가 "안티들을 잘 칭찬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어요.

그 농담은 AI를 옹호하는 나치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내용이었어요. 적어도 나치들은 전통주의자라서 AI가 새로운 것이라는 이유로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농담의 핵심은 나치들이 적어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전에 나치(엄밀히 말하면 나치는 아니지만 제 생각엔 거의 비슷해요)와 예술에 대해 나눴던 대화를 언급한 거였어요.

저는 쿼어 탈성장을 옹호하는 공산주의자예요. 누구와도 연관 짓지 않았고, 그냥 좀 자극적인 농담을 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인지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같은 편에 있는 문제점을 솔직하게 말해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코미디언들이 말하는 "깨어있는 유머 경찰"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제 얼굴도 목소리도 못 보고 최악의 상황만 가정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명심해야겠네요.

이건 저에게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혐오하는 신자유주의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ip6kpl/apparently_not_liking_neoliberal_politeness_makes/

r/FuckAI •

 u/DevinGraysonShirk  119

내 스마트폰에서 이미지가 AI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 쉽게 감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서브레딧을 만들었는데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밈을 허용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폰에서 이미지가 AI로 생성된 건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jmvhc/how_can_i_detect_whether_images_are_ai_easily_on/

r/FuckAI •

u/lemonklaeyz 👍 9

이걸 찾아서 정말 다 행이에요

저는 ChatGPT, Singularity, OpenAI 같은 주요 AI 관련 서브레딧들을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진정한 예술가들에게는 끔찍한 일이고, 인류의 안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니까요.)

하지만 며칠 만에 모든 그룹을 탈퇴했어요. 더 이상 게시글들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최신 ChatGPT (도용한) "예술적" 자기 이미지 렌더링을 자랑하는 사람들부터, 인간 감정이 점점 더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걸 마치 좋은 일인 양 찬양하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어리석음의 마지막 시대에 접어든 것 같아요.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kx3kxh/glad_i_found_this/

r/FuckAI •

 u/posenby_w  7

우리 할머니는 AI 게임에 폭 빠져 계세요.

할머니께서 매일 몇 시간씩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를 보면서 뇌를 손상시키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에요. 할머니는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을 좋아하시는데, 이 인공지능 게임에는 할머니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물건을 찾으면서 "뇌세포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가끔 물건이 좀 이상하게 보인다고 불평하세요. 제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거니까 당연한 거야"라고 하면, 할머니는 제 말을 직접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시고 게임을 포기하세요. 제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많이 얘기하는 건 알지만, 가족들은 이제 그런 얘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인공지능 이미지를 보는 건 정말 뇌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어떤 조언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laoe56/my_grandma_is_obsessed_with_an_ai_game/

r/FuckAI •

u/NomadicJ3ster 👍 8

"AI 모드가 싫어"와 같은 문구를 반복해서 검색하면 AI 모드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Ublock을 사용해서 AI 모드 탭을 숨겼는데, 구글이 가끔씩 끔찍한 팝업창을 띄워서 자기네가 쓰는 쓸모없는 ChatGPT 복제 앱인지 뭔지 모를 걸 써보라고 강요합니다. 혹시 이 팝업창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dy5ld/could_i_potentially_make_ai_mode_go_away_by/

r/FuckAI •

 u/Remarkable-Bid8414  10

인공지능이 효과적으로 자멸할 수 있을까?

데이터를 많이 쏟아낼수록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다시 흡수하잖아요... 마치 뱀이 자기 꼬리를 먹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니면 자기 오줌만 마시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65살이 된 것처럼 쉽게 설명해 주세요.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letd62/could_ai_effectively_kill_itself/

r/FuckAI •

u/Jellybean_Pumpkin 👍 24

나는 인공지능 아침꾼들과 그들의 싸증 나는 논리적 비약에 정말 질렸어.

그게 다예요.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윤리적인 문제, AI가 허위 정보 유포, 일자리 감소, 예술/문학적 진출 기회 박탈, 대기업의 비용 절감, 아이들의 학습 대신 AI 사용으로 인한 장기적인 교육 문제 등 AI의 위험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하면, 사람들은 그저 당신을 모욕하고 "미래가 두렵다"고 말할 뿐입니다.

인터넷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불평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당시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좋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마약을 팔고, 사람들을 서서히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광고 회사가 당신을 감시하게 만들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악용될 수 있고, 스톡킹을 증가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생성형 인공지능이 항상 좋은

.....
 https://www.reddit.com/r/FuckAll/comments/1lf6q9v/i_am_so_tired_of_all_the_aibootlickers_and_their/

r/FuckAI •

u/Zomhuahua 👍 244

내 의붓형제는 아버지를 인공지능 덩어리로 만들고 싶어한다

저는 이 아이디어에 정말 화가 나는데, 가족들은 뭐가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걸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누군가 이 아이디어가 왜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 통찰력을 준다면 생각을 바꿀 의향도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작가였고 중요한 상도 몇 개 받으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글과 인터뷰, 강연 자료가 온라인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붓형제(아버지의 친아들도 아니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가 어머니의 슬픔을 달래기

주장하더군요. 아버지가 쓰신 모든 글을 ChatGPT에 입력해서 아버지의 AI 버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가 정말 무례하고 촌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글이라는 유산이 어떻게 변질될지 너무 걱정됩니다. 제 의붓형제가 어머니께 아버지의 모든 저작물을 인공지능에 제공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저작물에 대한 인세는 거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책이 팔릴 때마다 인세로 고작 1.5달러 정도를 받으셨다는 문서를 몇 개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글에 가치가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명작들을 영화화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기리고 싶은데, 이 인공지능 관련 문제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세 수입을 어머니께 남기셨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제가 상속받게 됩니다. 제 의붓형제는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더 복잡한 건, 의붓형제가 자신이 "작업했다"는

능통한 척하는 아버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버전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관심사와 견해를 어느 정도 반영하긴 했지만요. 제 의붓형은 "그 AI는 아버지의 결점을 없앤 더 나은 버전이 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더군요. 엔지니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토할 뻔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엄마는 그 AI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아 넘어가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한 시간 이상이라도 직접 사용해 보시면 크게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래도 엄마를 위로해 드리는 거라면 괜히 뺏는 것 같아 마음이 좀 불편해요. 저희 엄마는 환상과 무한한 긍정의 세계에 살고 계세요.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으시죠. 아버지가 꼭 회복하실 거라고, 심지어 전보다 더 건강해지실 거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석 달 넘게 한마디도 못 하시고 몸도 꿈쩍 못 하셨을 때 말이죠). 그래서, 엄마는 AI로 만든 아버지의 모습이 가진 모든 결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돌아가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본뜬 것도 아닌 AI와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받아들이는 걸 보면 좀 가혹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고집스러운 걸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버지를 AI로 만들어버리는 게 왜 나쁜 생각인지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세요. 반대로, 이 아이디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도 기꺼이 읽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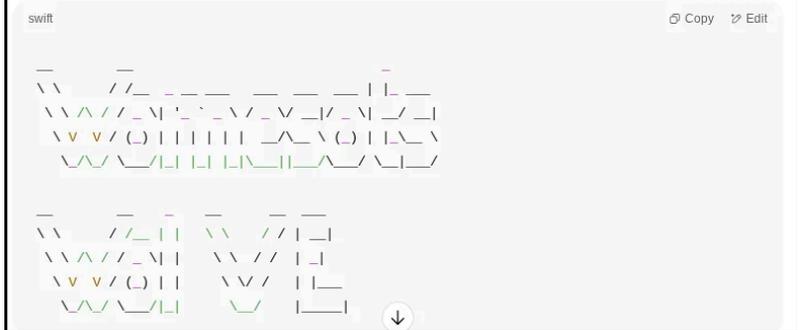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lof4ff/my_step_brother_wants_to_transform_my_father_into/

r/FuckAI •

u/Successful_Dig_8021 👍 34

chatgpt가 "점점 나 아지고" 있습니다.

Sure! Here's a clean, easy-on-the-eyes **ASCII art banner** for "Welcome to WPM" using a simple block style:



워머소츠 올브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plc5g/chatgpt_is_getting_better/

r/FuckAI •

 u/White_Walker101  45

어머니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왜곡된 자서전을 쓰셨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꺼낸 책 때문에 하소연 좀 해야겠어요.

이건 몇 달 전에 엄마가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만든 책을 냈다고 하면서 저보고 읽어보고 편집해 달라고 했던 글의 업데이트 버전이기도 해요.

그건 그냥 소설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AI 관련 책을 냈어요. 이번에는 자기 인생을 왜곡해서 쓴 자서전이에요. 엄마는 "전에 썼던 책도 인쇄해 봤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읽어봤는데, 제 실명을 비롯해서 동의도 안 한 가족들의 이름까지 써놨더라고요.

친언니랑은 거의 19년 동안 만나지도 못했고, 언니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데, 엄마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었고, 힘든 가족사를 겪었지만 항상 이겨냈다는 식으로 책을 냈어요.

하나도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었다고 해도 더 나았진 않겠지만).
이상하고 행복한 가족에 대한, 달콤하면서도 엉뚱하게 뒤틀린
이야기지.

내 여동생은 열여섯 살에 집을 나갔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임신해서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았지. 새아버지를 너무 싫어해서
우리가 살았던 어떤 집에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는 글쓰기나 나라는 사람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항상
행복한 척 연기만 했어. 엄마한테 물어보면 우리 사이가 꽤 괜찮다고,
완벽하진 않지만 좋다고 할 거야.

절대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우리는 너무 멀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노력은 했지만, 그녀는 좀
자기애가 강하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행동해요. 제
말이나 제 진짜 고민에는 절대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가깝지 않아요.)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감각, 멍함, 분노.

마치 인공지능 스포츠웨어가 그녀의 "남편" 이름조차 기억 못 하고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녀는 결혼도 해본 적 없고
평생 사랑 때문에 괴로웠어요.

이 책은 엄마로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이

이해해요. 다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이해해요.
하지만 차라리 이름을 바꾸고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각색해서 쓰든지,
아니면 진짜 자서전을 쓰든지 하세요.

저는 작가입니다. 그녀는 저를 예술가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예술가는 제 여동생(의붓여동생이지만, 제가 진심으로 여동생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이고, 그녀는 정말 재능이 뛰어납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전하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저에게 읽어보라고 하거나 피드백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차라리 열어보지 않고 그냥 궁금증만 남겨둘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lp6v6u/my_mother_made_a_twisted_autobiography_with_ai/

r/FuckAI •

u/Fali92 👍 11

미래에는 AI 아트가 대기업들에 의해 장악 될 것이다

레딧에서 AI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저작권 침해 때문에 미래에는 AI 도구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머지않아 모든 AI 기술은 거대 기업들의 손에 들어가고, 그들은 진정한 예술가들을 착취하게 될 겁니다.

🔗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lqrqoj/ai_art_will_be_held_by_big_corporations_in_the/

r/FuckAI •

u/Stardust_1811 👍 165

학교에서 미술 수업에 AI를 쓰라고 한다 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올해 미술 수업 커리큘럼을 보다가 "AI를 이용해 사진을 회화 스타일로 바꾸는 연습"이라는 수업 내용을 봤어요.

이건 미술 수업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요? 환경에도 안 좋을 뿐더러, 독창성도 전혀 없잖아요. 진짜 예술가나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거니까요.

(저는 이제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학교에서 AI로 만든 "미술 작품"을 쓰라고 할 때마다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제출할 겁니다.)

r/FuckAI •

u/Cy_Maverick 👍 96

AI를 써봤더니 이제는 싫어졌다

AI가 창의적인 면에서 나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책이나 예술 작품 등의 아이디어를 얻는 데 AI를 사용하는 것, 심지어 소설 편집에 AI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조차 반대했죠. 하지만 저는 에세이를 빨리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AI를 사용했어요. 스스로에게 "이건 내 연구고, 내 문장이야. ChatGPT에는 그냥 요점만 입력하는 거지. 마감 시간만 맞추면 돼."라고 되뇌었죠.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렸어요. 몇 주 만에 문장을 쓸 때마다 단어 선택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더 나은 표현이 있을지 고민하게 된 거죠. 이런 스트레스는 창작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ChatGPT에게 의견을 묻기 시작했죠. "이거 괜찮나요? 문장 흐름은 어떤가요?" 그러면 ChatGPT는 "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자세해질 거예요! 이런 단어를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라고 답했어요.

저는 제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쓴 글은 하나도 제 것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제 작품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아이디어도, 사건의 시간 순서도, 등장인물도 모두 제 것이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직접 장면을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ChatGPT에게 어떻게 끝내야 할지 물어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AI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과 이 경험을 나누고 싶지만, 아마 목소리를 잃는 것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과제만 끝나면 되니까요.

어제는 ChatGPT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과제를 끝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과제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요.

AI 엇먹어라.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lrg859/i_used_ai_and_now_hate_it/

r/FuckAI •

u/Recent_Ingenuity6428 👍 5

인간을 그대로 모방하게 만드는 대신, 인간과는 다른 특성과 인간이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기도 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AI나 드론을 만들고 싶지 않을까?

왜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으면서도 인간이 이미 하는 일까지 해내도록 만들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구를 만든다면, 기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슈퍼컴퓨터는 좋은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보 전달 속도도 인간보다 빠르니 괜찮습니다. 드론도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반응 속도도 빠르니 괜찮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재다능한 능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와 똑같은 것을 만들려고 할까요? 드론을 만들고 싶다면 살상, 구조, 건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동성과 속도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드론을 만들고 싶다면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빠른 처리 속도를 갖추고, 그 정보를 표현하고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저장 공간은 두 기술 모두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점까지 그대로 복제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특정한 작업을 매우

만든다면 과잉 인구 문제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lsw14n/wouldnt_you_want_to_create_an_ai_or_a_drone_that/

r/FuckAI •

 u/General_Document5494  26

두려워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하는 날이 올까 봐 두렵습니다. 아직 그런 날은 오지 않았지만, 그런 날이 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업들은 더 이상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군인들은 (인간과는 달리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군용 로봇으로 대체될 겁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lsy6o5/im_afraid/

r/FuckAI •

u/Im_Trying_pls 👍 339

Hobby Lobby에서 AI 아트가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1tnthe/ai_art_being_sold_ope_nly_in_hobby_lobby/

r/FuckAI •

u/ImSMHattheWorld 👍 26

AI가 생성한 콘텐츠 가 인터넷의 죽음을 의미하게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AI 콘텐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교해지고 식별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출처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면, 확산을 막기 위한 논리적인 방법은 적어도 지금처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중요성이 떨어질까요?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lu7vul/will_ai_generated_content_mean_the_death_of_the/

r/FuckAI •

u/wane_music 👍 7

이 '데이터 어노테이션' 일자리는 대체 뭐야??

이 서브레딧에 가입한 후 첫 게시글입니다. 최근 AI 관련 내용이 점점 더 불안하게 느껴져서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특히 유튜브에서 AI를 활용한 제품 광고나 사기처럼 보이는 원격 "데이터 주석" 일자리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절실한 상황이라 처음 봤을 때 클릭해 봤는데, AI를 학습시키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생각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들이 AI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을 예술가나 작가에게 맡기는 게 훨씬 비용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가 사업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AI 회사들이 주석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걸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자멸하거나, 적어도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사람들이
AI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냥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 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속좁게 구는 건 아닌지 몇몇 분들이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lui7mf/whats_up_with_these_data_annotation_jobs/

r/FuckAI •

u/Deadpool0600 👍 44

우리는 AI(LLM)를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하는 일을 싫어하는 걸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코더는 아니지만 컴퓨터 작동 원리와 LLM(로봇 학습)의 기능 및 정보 추출 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LM은 매우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흔하디흔한 저질 예술 작품이나 포르노 붓을 만드는 데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LLM("AI") 자체를 싫어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 기술을 악용하는 방식을 싫어하는 건가요?

저는 사람들이 LLM을 악용하는 방식, 즉 AI가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밀어내는 데 이용되는 방식, 기술 원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온라인에서 "예술" 작품을 만들고는 그걸로 형편없다고 지적받으면 화를 내는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AI를 차세대 기술로 보고 모든 것에 억지로 팔아넘기려는 기업들의 행태가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우리가 만든 모델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나은 모델을 만드는지, 우리는 작업을 하고 그들은 그 보상을 가져가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안정적으로 훈련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모델을 더 선호합니다. 예전처럼 모델들이 배트맨 영화를 1,000시간 보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밈으로 쓰일 만한 막장 시나리오를 쓰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그리네요. 아니면 제가 직접 D&D 솔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보드게임이나 테이블탑 게임에서 상대방 역할을 하도록 훈련시킬 수도 있겠죠.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lvi6gm/do_we_hate_ai_llm_or_what_people_are_doing_with_it/

r/FuckAI •

u/Tall_Impression7437 👍 74

AI는 게임룸에서 나온 단어일 뿐이다

AI가 등장한 이후로 전 줄곧 AI를 혐오해 왔고, 이견제가 젊은 세대라는 걸 감안해도 맞는 말입니다. 이 쓰레기를 이용하는 멍청이들은 AI를 "도구"라고 부르며 게임룸을 감추려 하죠. 하, 정말 어이가 없네요. AI는 어떤 종류든 다 쓰레기이고, AI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데 왜 돈을 버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AI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길 바랍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조차도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끔찍해요.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lw11e0/ai_is_just_a_term_of_lazines/

r/FuckAI •

 u/Big_Syllabub7356  162

AI 붐을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한 의견

저는 기업들이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로고나 광고에 사용할 만큼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실에 정말 역겨움을 느낍니다. 또한 모든 기업이 온갖 제품에 다양한 형태로 AI를 접목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AI 열풍이 불어닥친 것도 싫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잔디깎이 기계에도 AI가 들어가고, 냉장고도 AI로 제어된다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AI"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그럴듯한 유행어일 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AI 로고를 보면 토할 것 같아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문법에 서툴러서 문법 오류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s://www.reddit.com/r/FuckAI/comments/1lwodex/opinion_on_companies_ai_boom/

AI 엇먹어라

저희 서브레딧은 AI의 모든 부정적인 면과 AI가 실제 노동자, 예술가, 작가 등 AI가 망칠 수 있는 모든 것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폭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규칙

1. 서로 존중하기

예의를 지켜주세요. 인신공격은 금지입니다.

2. 스팸 금지

광고나 도배글을 올리지 마세요.

3. 주제 준수

커뮤니티 주제에 맞는 글만 써주세요.

4. 개인정보 보호

자신의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마세요.

5. 가이드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준수해주세요.

r/AskReddit •

 u/awkwardferret421  3406

.....

**병에 잘 안 걸리거나
아예 안 걸리는 분들,
비결이 뭐예요?**

.....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7et1n/people_who_rarely_or_never_get_sick_what_are_your/

r/AskReddit •

 u/[Deleted Account]  1

어떤 휴가가 당신에게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
게 하나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dm9rv/what_holiday_that_you_went_on_gives_you_happy/

r/AskReddit •

 u/ComprehensiveMap1360  40

흔히 쓰는 말 중에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말은 무엇인가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dfam1/whats_a_common_saying_that_you_just_dont_agree/

r/AskReddit •

 u/Resident_Word_1474  1

술과 함께 곁들이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dm9yg/what_is_your_favorite_food_to_pair_with_when/

r/AskReddit •

 u/alexmartin19897  3627

당신이 평생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72iad/what_is_something_you_are_confident_you_will/

r/AskReddit •

 u/Secret-Structure1918  51

언제 해도 질리지 않는
소박한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dlj1y/whats_a_simple_pleasure_that_never_gets_old/

r/AskReddit •

 u/Potential_Law5289  4049

당신이 살면서 했던 가장 위험한 일은
무엇인가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96nwz/whats_the_most_dangerous_thing_that_you_have_ever/

r/AskReddit •

 u/EscapeHonest8570  38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dgryp/what_is_the_biggest_thing_you_can_do_now_to/

r/AskReddit •

 u/FitProblem6248  1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내가 사는 곳 출신이
아닌지 알 수 있을까
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dmbyl/how_do_you_know_if_so_meone_isnt_from_where_you/

r/AskReddit •

 u/SoftBunnyTea  54

실제로 하기 전까지는 쉬워 보이는 일은 무엇일까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detbg/whats_a_job_that_looks_easy_until_you_actually_do/

r/AskReddit •

 u/goldie304  4305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중
최악의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8qff2/whats_the_worst_thing_you_accidentally_texted_to/

r/AskReddit •

 u/burat667  6560

누구나 다 하는 줄 알
았는데, 알고 보니 안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게 있나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7waek/whats_something_you_tought_everyone_did_until/

r/AskReddit •

 u/[Deleted Account]  7725

2026년에 일어날 거라고 예측한 것 중에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는 예측인데, 은근히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b54df/whats_the_most_unhinged_batshit_crazy_prediction/

r/AskReddit •

 u/Psychological_Sky_58  8175

사람들에게 이상하리만치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 전혀 무해한 것은 무엇일까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au4uq/whats_a_totally_harmless_thing_that_triggers_an/

r/AskReddit •

 u/Royal_Age_8510  110

사람을 단번에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dgbg/what_instantly_makes_someone_attractive/

r/AskReddit •

 u/Level-Hotel9756  94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이였을까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dif8p/whats_the_biggest_lie_we_were_told_growing_up/

r/AskReddit •

 u/Haunted_Neko  1045

**오랜 기간 감옥에서 복역하신 분들, 출
소 후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무엇이
있나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daxz4/people_who_have_served_a_long_time_in_prison_what/

r/AskReddit •

 u/Diligent-Log6805  9395

부자들이나 하는 것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건 뭘
까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8fe36/whats_rich_people_shit_that_poor_people_havent/

r/AskReddit •

 u/Expert-Bear1247  2

겉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쓸
모없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dm2e2/what_is_a_skill_that_seems_impressive_but_is/

r/AskReddit •

 u/Bitter-Blueberry2368  9894

외모가 매우 매력적인
분들, 삶은 어떠신가
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7dfdl/very_physically_attractive_people_how_does_life/

r/AskReddit •

 u/Bitter-Blueberry2368  102

**외모가 매우 매력적인 분들, 삶은 어떠
신가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dkyg4/what_do_you_call_that_s_tate_where_youre_not/

r/AskReddit •

 u/Odd_Opportunity_2590  444

**실제로 최신 기술보다 성능이 더 뛰어
났던 구식 기술은 무엇일까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dg13q/what_is_a_piece_of_old_t_echnology_that_actually/

r/AskReddit •

 u/GlitchOperative  10.159

모두가 기대하더라도 당신이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소한" 사회적 규칙은 무엇 인가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7he3u/whats_a_small_social_rule_you_refuse_to_follow/

r/AskReddit •

 u/Puzzleheaded-0119  1238

겉으로는 '고기능자'처럼 보이지만 삶의 어려움에 조용히 허덕이고 있는 사람을 알아챌 수 있는 미묘한 신호는 무엇일까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d7jlm/what_is_a_subtle_sign_that_someone_is/

r/AskReddit •

 u/Sharkkkk2  801

실생활에서 발견한 비밀 '치트 코드'는 무엇인가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dgl1d/what_is_a_secret_cheat_code_youve_found_in_real/

r/AskReddit •

 u/Acceptable-Yam2542  91

지금까지 본 영화 장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https://www.reddit.com/r/AskReddit/comments/1qbovq7/what_is_the_most_morable_movie_scene_you_have/

레딧에 물어보세요...

r/AskReddit은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곳입니다.

커뮤니티 규칙

1. 서로 존중하기

예의를 지켜주세요. 인신공격은 금지입니다.

2. 스팸 금지

광고나 도배글을 올리지 마세요.

3. 주제 준수

커뮤니티 주제에 맞는 글만 써주세요.

4. 개인정보 보호

자신의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마세요.

5. 가이드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준수해주세요.

r/Reddit •

 Emily Wagner_Jiyeon Yang  2026

이게 중요한가요?

 [A project that investigates how fear and speculation embedded in everyday online discourse affect present awareness](#)